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1995. 9

金 聖 哲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 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사회주의체제는 그것의 형성, 발전, 변화, 위기 그리고 쇠퇴의 한 주기(cycle)를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보여준 셈이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주의 연구자들은 사후에나마 여러 이론을 동원하여 이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들의 분석은 變革의 主體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여기서 자연스럽게 知識人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었다. 실제로 동구 사회주의체제,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중부유럽 국가에서는 지식인이 사회변혁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그들은 당·국가의 공적 영역에 대응하는 사적 영역의 확대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 北韓의 지식인이 어떤 사회적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체제의 변화 및 위기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지적 호기심일 것이다. 그러나 각 체제마다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知識人 政策으로 인해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도 지식인이 변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유의하여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북한의 지식인 정

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인의 역할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연구원내 동료들은 집필자의 발표과정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연세대의 안병영 교수는 비교사회주의 시각에서 귀중한 조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김정민 선생을 비롯한 여러 귀순인사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드러내 놓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북한의 지식인에 관한 분석이 비교적 생소한 현실 속에서 나오게된 본 보고서가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5. 9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본 연구는 比較社會主義 視角에서 지식인 정책과 지식인의 역할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명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北韓 知識人 政策의 변화와 이에 따른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망하였다. 본 연구는 분단관리체계라는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로당계를 중심으로 한 구지식인의 대대적 숙청과 '인테리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정책에 의해 지식인의 독자적 지위와 활동이 매우 위축되었다고 파악하고, 개방 및 개혁정책이 최고 지도부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 지식인이 機能的으로 기여할 수는 있지만 政治的 變革의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1. 社會主義體制 知識人에 관한 一般 命題들

각 사회주의체제의 역사적 특성과 상이한 지식인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명제를 도출해 냈다.

첫째, 근대 民族國家의 形成過程에서 지식인이 주도적 역할을 행한 경우 사회주의체제 변화과정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되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및 헝가리와 같이 수세기에 걸친 외세의 침입 속에서 하나의 사회계층을 형성하여 민족적 자각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는 지식인들이 차후 억압적인 사회주의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지식인은 이같은 전통을

가지지 못했다.

둘째,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지식인이 수행하는 역할은 권력 엘리트의 知識人 政策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독일은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민주주의 전통을 수립하였지만, 전후 동독은 분단관리체제로서 지식인에 대해 일관된 통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동요를 억제하였다. 또한 루마니아는 억압적인 지식인 정책 외에도 국제적 마찰을 民族主義的 감정 제고에 활용함으로써 이념적 기반이 취약한 지식인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하였다.

셋째, 사회주의체제 위기시 지식인의 역량은 상당 부분 비판적 지식인의 量的 擴大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지식인이 문학작가 집단과 같은 특정한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의사, 평화운동가 등 非政治的 分野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에게까지 확대될 때 민주적 체제로의 변혁과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

넷째, 지식인과 타 社會勢力 사이의 連帶 또한 지식인의 역량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즉, 권력 엘리트에게 가장 위협적인 도전 중의 하나는 지식인과 타 사회집단간에 존재하는 괴리가 좁혀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인과 타 사회세력간의 연대는 횡적인 連結效果(coupling effect)를 발휘하여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시민사회 주도의 체제변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폴란드와 중국은 매우 對照的

인 事例라고 할 수 있다. 즉, 폴란드 지식인은 노동자계급과 연대하여 자유노조의 조직화에 기여한 반면, 중국의 지식인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져 노동자들을 민주화운동의 세력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말았다.

2. 北韓의 知識人 政策

사회주의체제 건설 이후 북한의 지식인은 급속한 공업화, 의무교육의 확대, 주체사상의 정립,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등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요인들에 의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왜소화되었다.

첫째, ‘오랜 인테리’의 肅清은 북한 특유의 지식인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식인 고유의 속성인 비판의식의 재생산을 차단하였다. 숙청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갈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한반도가 분단체계였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월북 지식인과 남북 인사들은 남로당계의 처리와 남북한 체제경쟁의 희생물이 되었다.

이같이 숙청에 의존했던 북한 사회주의 이행기의 지식인 정책은 유사한 분단관리체제이면서도 반체제 지식인의 해외 망명을 허용했던 東獨의 그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의 개념을 원용한다면, 북한의 지식인

정책은 숙청을 통해 그들의 불만표출(voice)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충성(loyalty)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불만표출에 따른 시련의 대안으로서 해외망명(exit)을 허용하였던 동독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좌절감을 주는 것이었다.

둘째, 북한은 ‘革命化, 勞動階級化’ 정책을 통해 지식인의 계급적 변형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지식체계가 담보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북한처럼 ‘새 인테리’의 급속한 양적 증대를 낳은 사회주의체제가 없었지만, 그들을 노동계급화하여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박탈하였다. 이 정책의 중요한 파급효과는 과학 및 기술분야 지식체계의 質的 低下였으며, 이로 인해 휴전 후 북한이 이룩한 급속한 공업화가 지속될 수 없어 1960년대 말부터는 停滯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오랜 인테리뿐만 아니라 새 인테리 특히 기술자의 사회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북한 지식인의 저하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단순히 북한의 지식인 정책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북한 지역에 사회주의체제가 건설되기 이전 우리 역사 속에서의 知識人 傳統 또한 이상과 같은 분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도입 이래 형성된 知識의 公有化 전통은 북한체제 내에서 공적 영역을 벗어난 지식인 집단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

들었으며, 새로운 지식인이 철저한 당의 울타리 안에서 양성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키고 외부로부터의 탄압에 대한 은신처 역할을 수행할 宗教와 制度가 우리의 근대사에 부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권력 엘리트에 의한 숙청에 대해 북한 지식인들은 일방적인 피해자로 머물러야 했다.

3. 北韓 知識人의 役割 展望

이상으로 말미암아 취약한 사회적 지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북한 지식인은 그들의 창조성을 체제비판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기 힘들 것이다. 반면 改革·開放이 권력 엘리트에 의해 '위로부터' 추진되는 경우, 체제유지 및 변화에 機能的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식인의 고지식한 속성은 그들 고유의 창조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식인은 권력 엘리트의 옹호를 받아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이는 中國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 경우 주체사상의 관점 또는 그것의 이론적 변용을 통해 점진적 체제변화를 정당화하는 社會科學 분야의 인테리와 공장·기업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技術 인테리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知識人에 관한 比較社會主義的 觀點	5
1. 知識人의 概念	5
2. 社會主義體制 知識人의 比較分析을 위한 範疇	11
3. 社會主義體制的 知識人 政策 및 知識人의 政治的 役割	14
4. 社會主義體制 知識人에 관한 몇 가지 命題	47
第 III 章 北韓 社會主義 移行期 知識人의 試鍊	53
1. 知識人의 歷史文化的 傳統	53
2. 體制形成과 二重的 知識人 政策	56
3. 엘리트 葛藤과 南勞黨系 知識人의 肅清	63
4. 社會主義的 改造와 知識人의 思想改造	75
5. 小結論	80
第 IV 章 金日成 唯一指導體制 確立期 知識人의 階級的 變形	83
1. 急速한 工業化 對 知識體系의 踏步	83

2. 南北韓 體制競爭과 舊知識人の 處理	90
3. 知識人の 勞動階級化	94
4. 小結論	99
第V章 金正日 登場期 知識人の 承繼體制 道具化	102
1. 新知識人の 動員과 知識體系의 限界 露呈	102
2. 金正日 後繼構圖와 文學藝術人の 優待	109
3. 小結論	114
第VI章 社會主義 大變革 이후 北韓의 知識人 統制	115
1. 社會主義圈 崩壞와 金正日의 知識人觀	115
2. 金正日의 知識人 統制	120
3. 小結論	123
第VII章 北韓 知識人の 社會的 存在樣式	125
1. 一般的 行動樣式 및 意識	125
2. 分野別 知識人の 實態	128
第VIII章 結 論	138
參 考 文 獻	143

第 I 章 序 論

북한의 노동당 마크가 망치, 낫, 붓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인은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社會集團 중의 하나이다. 북한 지식인은 노동자와 농민을 제외한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더욱이 고도의 정치적 통제로 인해 그들의 의식과 내면세계에 대한 분석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주의국가에서 지식인이 체제의 발전, 변화, 위기 등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지식인은 체제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知識人에 관한 研究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역사적 전환점에서 그들의 역할이란 역사문화적 전통과 사회주의 건설 후 권력 엘리트의 지식인에 대한 정책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지식인이 비판적 속성으로 인해 반드시 체제변혁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들의 붕괴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각 체제마다 지식인의 역할은 큰 差異를 보여 주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식인은 체제변혁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던 반면, 나머지 국가들의 지식인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 지식인 연구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타 사회주의체제 지식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일반 명제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명제에 바탕을 둘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북한의 지식인 정책과 그들의 존재양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객관적 전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比較社會主義的 視角을 가지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 속에서 권력 엘리트가 지식인에 가했던 정책, 즉 구지식인의 흡수, 사상개조에 의한 변형, 새 지식인의 양성, 숙청 또는 통제 등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동시에, 지식인의 정치적 역할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사회과학에서 논의되는 지식인의 개념을 개관하고, 사회주의체제 비교를 통해 지식인 정책과 지식인 역할에 대한 一般化를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서 일반화란 기존 사회주의체제들(또는 현존 사회주의체제라도 천안문사태와 같은 정당성의 위기를 경험한 중국의 경우 포함)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독자적인 지식인 정책 속에서 지식인의 존재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지식인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몇 가지 명제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 일반화는 북한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발생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효용성을 지닐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북한 社會主義 移行期 지식인 정책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해방 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한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의 신·구지식인이 교체되는 과정을 엘리트 갈등과 이에 따른 숙청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악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북한에서 공업화가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金日成 唯一指導體制가 확립되던 1960년대에 신·구지식인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통제정책을 서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북한이 급속한 공업화와는 대조적으로 지식인의 질적 향상을 성취하지 못한 반면, 대남공작 과정에서 구지식인의 잔재를 처리하고 지식인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정책을 통해 지식인을 희석화시키는 과정을 조망할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金正日의 後繼者 지목과 함께 전개된 3대혁명소조운동과 대대적인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지식인이 승계체제의 도구화가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장은 특히 새 지식인의 동원과 갖가지 통제로 인해 지식체계의 발전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김정일의 위상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학예술인의 지위 향상이 결국 지식인의 차등

화 현상을 낱개됨을 논의할 것이다.

제Ⅵ장은 社會主義 大變革을 목격하면서 김정일이 제시한 지식인관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그의 지식인 통제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Ⅶ장에서는 북한의 현 지식인의 社會的 存在樣式을 고찰하고자 하며, 특히 그들의 일반적 행동양식과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지식인은 자신들의 지적 능력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소극적 행동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제Ⅷ장의 결론은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 지식인의 향후 역할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제Ⅱ장에서 도출한 경험적 일반화를 이론적 바탕으로 삼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資料들을 사용한다. 북한 지식인 정책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위해 김일성·김정일의 문헌 등 1차 문헌을 참고한다. 또한 지식인 정책에 따른 그들의 사회적 존재양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를 경험한 귀순인사들의 수기를 참조하고 지식인의 행동양식 및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그들과의 면담을 참고한다.

第 II 章 知識人에 관한 比較社會主義的 觀點

1. 知識人의 概念

북한에서는 흔히 인테리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어의 인텔리겐차(intelligentsia)에서 비롯되었으며 지식인이란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지식인의 범주에는 교원, 연구원, 문학작가, 예술인, 의사, 언론출판 종사자, 기술자 등의 정신근로자들이 포함된다.”

본 장은 북한 지식인에 대한 연구에 앞서 지식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사회주의체제 특히 북한에 적용하는데 있어 제기되는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보통명사로서의 지식인(intellectual)이란 용어는 1898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드레퓔스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정부가 유대인 출신인 드레퓔스(Dreyfus) 대위를 독일의 스파이로 몰아 부당하게 처단하려는 것을 말한다. 지식인이란 용어는 그를 구하려는 일군의 학자 및 문인

1)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9.2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74~311.

들의 ‘지식인 선언’에 대해 사건조작의 주모자들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면서 유래되었다. 즉, 이 용어는 批判的 思考 또는 의식과 도덕적 정열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을 함축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²⁾

그후 지식인이란 용어는 점차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으며 중요한 사회적 행위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식인은 반드시 비판적인 집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지식인에 관한 영향력있는 분석가 중의 한 사람인 쉘즈(Edward Shil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식인이란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인간, 사회,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일반적 범주와 추상적 준거를 지닌 상징들을 다른 사회 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말한다. 그들이 그런 상징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은 그들의 주관적인 성향 때문이거나 혹은 그런 상징의 사용을 요하는 직업적 역할수행의 의무감 때문일 수 있다.³⁾

2) 시무어 마틴 립셋, 아소케 바수, “지식인의 정치적 역할,” 알렉산더 켈라 편, 김영범·지승종 역, 「인텔리겐차와 지식인」(서울: 학민사, 1983), p. 96.

3) Edward Shils, “Intellectuals,”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7 & 8 (New York: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68), p. 399.

즉, 지식인은 빈번한 抽象的 象徵化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쉴즈의 정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상징화를 위해서는 教育을 통한 고도의 지적 능력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상화가 단순한 지식을 바탕으로 되풀이 하는 숙련이 아니라 創造的 行爲라는 것이다. 고등교육을 바탕으로 상징화를 추구하는 창조적 행위자로서의 지식인에 관한 이같은 개념 정의는 그들이 사회 내에서 批判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機能的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지식인의 창조성은 한 사회체계의 질서에 저항적이거나 혹은 옹호적일 수 있는 二重的 역할로 나타날 수 있다.

창조적 지식인의 위의 두 가지 역할은 립셋(Seymour Martin Lipset)과 바수(Asoke Basu)가 논한 비판자와 기능인이라는 개념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판자로서의 지식인은 경쟁적인 사조의 혁신적 대변자가 되어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게 된다. 립셋과 바수에 의하면, 이들은 획득한 지식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숙련공들과 달라서 어떠한 상황에 접하더라도 未來指向的 해답을 추구한다고 한다. 예컨대, 새로운 진리 탐구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치는 물리학도는 사회로 눈을 돌릴 때에도 새로운 진리의 추구를 중단하지 않으며 미래를 위한 일

에 과감히 뛰어든다. 이러한 사실은 구소련에서 사하로프를 비롯한 물리학자들이 반체제의 선봉에 섰다는 점에서 우연치 않게 증명된다.⁴⁾

둘째, 기능인으로서의 지식인은 특정한 권위구조를 합리화하는 正當化의 價値(legitimizing value)를 창출해 내거나 또는 자신들의 창의적 능력을 상징적 및 제도적 틀을 공고화하는데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관여하게 된다.⁵⁾ 예를 들어, 제도화에 성공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주의로 무장한 이데올로그들이 공산당 중심의 권위구조 구축을 정당화하였으며 사회 및 경제체계의 사회주의적 전환에 앞장섰다. 1950년대 초반 중국 공산당이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 지식인들은 소작농민과 더불어 토지의 몰수 및 분배에 대대적으로 참여하였다. 물론 지식인들의 기능적인 역할은 사회주의적 전환과정에 그치지 않고 체제의 변화에 따른 이론적 수정에도 깊이 관여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 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개혁노선이 1980년대에 이르러 박차가 가해지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기존의 이념에서 이탈한 평등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평등(equality)은 동등한 노동권을 가지는 것이지 결코 평등

4) 시무어 마틴 립셋, 아소케 바수, “지식인의 정치적 역할,” pp. 110~4.

5) 위의 논문, pp. 121~6.

주의(egalitarianism)를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사회주의는 일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⁶⁾ 이것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지식인의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의 二重的 役割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지식인을 두 가지 부류의 집단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지식인이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인은 그 자체로서 모순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며, 역사적 전통과 체제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어느 하나의 역할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지식인의 비판적 사회참여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독재체제의 등장으로 일시적으로 억눌려 있다가도 사회·정치적 변화에 따라 지식인의 사회적 참여 재현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지식인의 개념을 비교역사적 입장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명사화된 지식인 개념은 자신들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추상적 상징화를 추구하고 사회의 변화 또는 질서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반면, 그 개념 자체가 이들 사이에 공통된 가치에 바탕한 연대의식을 지닌 社會階層을 형성한다는 의미

6) Liu Guoguang, "Socialism Is Not Egalitarianism," 「北京周報」, vol. 30, no. 39 (September 28, 1987), pp. 16~8.

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곧 지식인 그 자체가 반드시 사회계층은 아니다. 창조성 혹은 추상성과 같은 보편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회계층을 형성하는가의 여부는 특정한 사회의 구조와 역사 그리고 정책에 달려 있다.

보편적 개념인 지식인과 구별되는 것이 러시아 및 동구의 특유한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회계층 혹은 사회집단을 지칭하는 인텔리겐차란 개념이다.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지식집단을 분석하려는 학자들은 역사적 연원을 염두에 두면서 인텔리겐차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집한다. 이것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대략 1840년대인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계층으로서 출현하게 된 것은 1860년대로 알려져 있다. 인텔리겐차는 그들이 지닌 심리적 특성, 예법, 생활양식, 가치체계에 의해 서유럽의 교양층과 구별되었다. 말하자면 인텔리겐차는 봉건체제의 몰락과 운명을 같이해야 했던 지주귀족 출신들로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집합을 이루는 계층이 아니라 일정한 價値共有와 문화적 유산의 수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타 사회집단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민족에 봉사해야 한다는 使命感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이런 사회계층의 존재여부는 사회주의체제의 제도화 이후 이들에 대한 정책과 함께 체제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2. 社會主義體制 知識人的 比較分析을 위한 範疇

북한의 지식인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 같은 인텔리겐차의 전통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테리라는 용어가 단순히 러시아어의 줄임말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 또한 북한의 인테리는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에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체계 또는 존재양식이 철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주의체제와 비교가 안될 만큼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테리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미진한 상태에서 그들의 사회적 존재양식과 정치적 역할을 엄밀히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지식인에 대한 經驗的 一般化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지식인에 관한 일반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범주를 설정하여 구소련을 비롯한 각 나라의 지식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社會主義體制 建設 以前 지식인의 전통이다. 지식인이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공통된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계층을 형성한 경험이 있는가는 향후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사적 전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그들의 출신배경 및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가치체계를 빼놓을 수 없

다.

둘째는 社會主義體制 建設過程 또는 制度化 以後의 지식인 수용 및 양성정책이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들은 기본적으로 레닌의 계급이론을 따라 노동자와 농민이 계급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규정하며, 두 계급 이외에 ‘類似階級’으로서 ‘대규모의 사회집단’을 설정한다. 정신노동분야의 전문가인 지식인 집단은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데, 사회주의체제가 기본적으로 비노동 수입을 부정하는 만큼 지식인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존재하게 될 수 밖에 없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는 제도화 과정에서 발전과 안정을 위해 구지식인을 수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인을 양성하게 된다. 구지식인의 수용방식에는 기본적으로 강제와 회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외에도 민족주의의 의식의 제고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또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고등교육 이수자의 활용방식은 각 체제마다 상이하며, 이 차이점은 다시 신지식인의 성향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는 社會主義體制의 變化에 따른 지식인의 存在樣式의 變移이다. 지식인 그 자체로서 비판적 및 기능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구조적 변화 또는 국제적 환경 변

7) 조한범, “러시아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기업가 형성의 경향성,” 「현대 산업사회 연구」, 1권 1호 (1995 봄), p. 98.

화로 인해 지식인이 비판적 역할을 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식인의 이러한 공간확보 과정에서 소위 반체제 인사라고 불리는 선구자적 비판자들의 세력화 또는 조직화 여부는 장차 지식인의 전반적 존재양식 즉 엘리트와의 권위관계를 결정할 것이다.

넷째는 社會主義體制 危機時 지식인의 의식과 역할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일반주민과의 連帶意識 여부이다. 지식인과 노동자의 연대는 비민주적 체제에서 민주적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⁸⁾ 물론 지식인과 타 사회계층 사이의 연대의식 또는 실질적인 연대는 위의 세 가지 요인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8) 예를 들어,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적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반체제 세력의 횡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Alfred Stepan, "State Power and the Strength of Civil Society in the Southern Cone of Latin America," in Peter Evans, Dietrich Reu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 336; Alfred Stepan,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Brazil and Southern Con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p. 6~7 참조. 그리고 부분간의 연대의 심도와 전체체제의 불안정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David Easton,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1990), p. 248; Robert B. Glassman, "Persistence and Loose Coupling in Living Systems," *Behavioral Science*, vol. 18 (1973), pp. 83~98; Herbert A. Simon, *The Science of the Artificial* (Cambridge, MA: MIT Press, 1981), pp. 200~2 참조.

서, 지식인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발전시키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엘리트와의 타협에 의해 민주적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社會主義體制의 知識人 政策 및 知識人의 政治的 役割

가. 蘇 聯

인텔리겐차라고 칭해지는 러시아의 지식인은 제정 러시아의 붕괴과정에서 실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이 되지 못한 사회계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특수성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歷史的 背景 속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트르 대제하에서 서구화 및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한 권력 엘리트와 지식인은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귀족계급 출신으로서 러시아 정교에 이념 및 사회생활의 기반을 두었던 하층계급 특히 농민과 괴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825년 일군의 청년장교 집단이 일으킨 데카브리스트(Dekabrist)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지식인의 권력 엘리트에 대한 비판은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론적 분쟁의 성격 또는 충의있는 야당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권력 엘리트와 지식인은 각기 자기

만이 러시아 민중의 유일한 대변자 또는 보호자임을 자처하면서 러시아 사회가 처한 문제들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葛藤關係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1861년 농노해방 이후 지식인층에 비귀족 잡계급(raznochintsy) 출신 청년들이 편입되면서 이분화 현상을 낳게 되자 더욱 격화되었다. 문화창조의 역할에 치중하는 문인, 학자, 예술가 등의 지식인과 정치참여를 제일 목표로 삼는 준지식인이 그것이다. 후자는 특히 급진적 인텔리겐차로 발전하여 대학생들과 함께 ‘인민으로’의 운동, 즉 나로드니크(narodnik)운동 아래 농민들을 혁명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민의 의지당’이란 폭력단을 구성하여 농노해방을 추진했던 알렉산드르 황제를 1881년 시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急進的 知識人의 활동이 기층 사회계층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결국 1905년 혁명도 무력에 의한 진압으로 좌절되자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方向標識」(Vekhi)이라는 논문집에 기고한 일련의 학자들의 논쟁이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로 혁명에 앞장섰던 급진적 인텔리겐차의 지도급 인물 7인⁹⁾이 1909

9) 이 일곱 사람은 베르샤예프(Nikolai A. Berdiaev, 1878~1948), 불가코프(Sergi N. Bulgakov, 1871~1944), 게르셴존(Mikhail O. Gershenzon, 1869~1925), 이즈고예프(Izgoev, Aleksandr S. Lande

년 3월 발행한 논문집에서 러시아 사회의 그릇된 모습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묻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을 촉구하는 논쟁이었다. 이들 지식인은 정치적 집착으로부터 탈피하고 종교에 귀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인간의 내적 생활 즉 인격의 문제를 사회문제보다 우선하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였다.¹⁰⁾

「방향표식」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념 및 행동좌표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기여하였지만, 이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았다. 밀류코프(P. Miliukov)를 비롯한 비판자들에 의하면, 「방향표식」 기고자들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우선시한 점은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 세력의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용해 온 이념적 도구의 재현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지식인의 인간애적 문제에의 관심은 무시되는 한편 급진주의 노선은 지속되었으며, 1917년 혁명에 의해 볼셰비키를 제외한 모든 구인텔리겐차는 전제정치의 잔재와 함께 역사 속에 묻히게 되었다.¹¹⁾ 다시 말해, 제정 러시아 말기 대부분의 지식인은 급진화로 말미암아 볼셰비키 혁명에 의

의 가명, 1872~?), 키스차코프스키(Bogdan A. Kistiakovskii, 1868~1920), 스트루베(Petr B. Struve, 1870~1944), 프랑크(Semen L. Frank, 1877~1950) 등이다.

10) 李仁浩, 「러시아知性史研究」(서울: 知識産業社, 1980), pp. 174~5.

11) 위의 책, p. 202.

해 소멸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러시아혁명 직후 사회주의체제 건설과정에서 지식인 특히 문학 작가들은 일정한 自律性을 보장받았다. 레닌, 트로츠키, 그리고 초기 문화상을 지낸 루나차르스키 등은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의 지적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내용과 방향을 조종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문학의 경우 1917년부터 1932년까지는 특정한 이론의 통제를 받지 않고 비교적 다양하게 발전하여 공산주의 문학단체와 비공산주의 문학단체간의 논쟁이 허용될 정도였다.¹²⁾ 즉, 초기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엘리트는 주로 부르조아 지식인을 흡수하여 혁명을 전파하는데 활용하고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초기의 볼셰비키들이 비교적 관대한 지식인 정책을 펼쳤던 것은 혁명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가 아직 미숙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구인텔리겐차를 완전히 배제할 만큼 체제의 가동력이 미치지 못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 또한 미비된 교육제도하에서 새로운 소비에트형 지식인이 양산되지 않았던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이같은 논지의 근거는 당시 체제건설의 주역인 공산당의 지적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기에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아 대학교

12) 李仁浩, 「知識人과 歷史意識: 러시아 知性史를 중심으로」(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0), pp. 260~9.

육을 받은 당원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공산당은 일단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들로 충원하고자 기존대학을 존속시키면서 일련의 공산주의대학을 설립하는 추세에 있었다. 1921년 붉은교수연구소(Red Professors' Institute)가 세워져 사회과학, 역사, 철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볼셰비키 이념으로 무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대학과 대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여 1924년 10개교 6,000명에서 1928년 19개교 8,400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7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교육을 받은 공산당원의 수는 고작 1%에 불과한 상태였으므로 권력 엘리트의 지식인 정책은 대체로 관대할 수 밖에 없었다.¹³⁾

스탈린의 집권과 함께 소련에서의 지식인 정책은 일대 轉換을 가져왔다. 우선 스탈린은 문학과 예술 활동에 대해 통제를 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932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를 공식적인 문예이론으로 선포한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으로, 테크닉에 있어서는 사실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더 발달된 사회계급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세계를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13)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梁興模 譯, 「蘇聯共產黨史」(서울: 文學藝術社, 1982), pp. 325~6.

발달된 계급이란 프롤레타리아이며, 문학과 예술의 진가는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의식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하는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인간을 사실대로 묘사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기 보다 사회주의적 이상형에 맞는 모델을 그려내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식인의 창조적 능력은 오직 사회주의체제에 기능적인 인간만을 형상화하는데 바쳐져야 했다.

1930년대 초의 일방적인 지식인 정책이 1928년에 시작된 농업집단화와 5개년계획을 통한 工業化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이 시기 권력 엘리트는 수많은 구지식인들을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노동현장으로 보내 계급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그들의 사회적 권위를 하락시켰다. 다른 한편, 농업집단화와 사회주의 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즉 사회주의의 기본질서가 구축된 상황에서 권력 엘리트는 지식인들로부터 새로운 체제의 정당성과 정책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체제에서든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권력 엘리트의 정책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소련 지식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소련 지식인은 서구 지식인과의 관계를 통해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전쟁이 가져다 준 영향은 少數民族의 知識人에게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전쟁중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진데다 특히 독일 점령지역인 경우 독일군의 선전에 힘입어 非러시아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민족주의 의식이 제고되었다. 더욱이 전쟁중 러시아 민족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칭송(전쟁중 영웅적 투쟁)과 타 민족과의 차별성 부각(소련내 모든 민족 중 가장 뛰어난 민족)에 대한 정책은 소수민족 지식인들의 반감을 자극하였다.

이같은 전후 지식인의 의식변화에 대해 스탈린은 1946년부터 1950년 사이에 강력한 統制政策을 실시하였다. 1946년 8월 새로운 당 기관지 「당생활」(Partiinaiia zhizn)을 다량 배포하여 지식인 특히 창조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당정신(partiinost)에 충실하지 않은 문학 작가들을 실랄히 비판하였다. 비판은 레닌그라드의 작가들과 유대인 출신 작가들에게 집중되었는데, 이같은 사실은 소수민족 지식인의 민족주의 고취에 대응하려는 것으로서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¹⁴⁾

지식인에 대한 강압적 정책은 결코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었다. 스탈린의 死亡과 함께 지식인 통제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토론이 1955년 에렌베르그

14) 위의 책, pp. 492~3.

의 「해빙」이란 중편소설이 발간되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후르시초프의 집권기(1956~1964)는 192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해빙 무드에 들어서 抵抗文化의 생성기로 표현될 만큼 온건한 정책이 펼쳐졌다.¹⁵⁾ 따라서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창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식인들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치성 있는 저작을 회피하였다. 이 시기에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출간되었다.

하지만 1964년 후르시초프의 실각으로 소련의 지식인 정책은 강경으로 선회하였다. 시냐프스키를 비롯한 비판적 지식인들은 1966년 소련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대해 문인뿐만 아니라 물리학자 사하로프, 역사가 야키르 등 거물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즉 人權運動에 돌입하게 되었다. 소련 정부는 이들을 탄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은 곧 이들을 광인으로 취급하여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이었다.

사미즈다트의 출현으로 지식인들의 비공식적 활동 공간은 확대되었다. 후르시초프 시대에 시작되었던 사미즈다트는 본래 순수한 문학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1966년 문인들의 투옥과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에는 일면 정치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복사 및 마이크로 필름 등 과학기술의

15) 趙政男, 「蘇聯反體制論」(서울: 大旺社, 1983), p. 50.

발달과 함께 확산일로에 접어들었다.¹⁶⁾ 솔제니친, 사하로프 등 사미즈다트 일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를 지적하고 고발함으로써 지식인 개개인의 인권옹호 및 검열제도 비판에 주안점을 두었다.¹⁷⁾

체제에 대한 비판적 지식인의 증대와 활동 공간의 확대는 그들의 理想的 分化라는 특이한 현상을 낳았다.¹⁸⁾ 이것은 제정 러시아시대의 인텔리겐차가 농노해방 이후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분파로 나뉘었던 양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브레즈네프 정권의 지식인의 인권유린은 자연히 서구의 자유주의적 이념에 바탕한 지적 체계의 확산을 가져왔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는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중 항독 투쟁에서 러시

16)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후의 모든 문학 작품은 이 사미즈다트를 통해서 발표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메드베데프의 스탈린시대 연구인 「역사의 심판」, 사하로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하여」 등을 들 수 있다.

17) 趙政男, 「蘇聯反體制論」, p. 269.

18) 이념적 분화는 크게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이루어졌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소수민족주의, 神政的 국가주의, 정교회 신앙에 바탕한 소비에트 국가주의, 범슬라브주의, 친러시아주의 등이다. Darrell P. Hammer, "Alternative Visions of the Russian Future: Religious and Nationalist Alternativ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 no. 3/4 (Autumn/Winter 1987), pp. 265~75.

아 민족의 영웅심을 자극하기 위해 전파한 親러시아主義(Russophilism)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류를 이루는 이념체계가 되었다.

친러시아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된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스탈린이 사망한지 20여 년이 지나 그에 대한 추한 기억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따라서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활용했던 친러시아주의도 보다 순수한 의미에서 재해석되었다. 둘째, 서구 문명의 산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가 지식인들의 이상과 괴리를 낳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안착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것이 곧 친러시아주의였다. 솔제니친이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다. 셋째, 브레즈네프시대 권력 엘리트의 반지식인 정책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정치 현실과 타협점을 찾게 하였고 이것은 결국 친러시아주의라는 러시아 민족주의로 귀착되었다.

친러시아주의에 귀의한 지식인들은 다시 소비에트 국가를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친러시아적 애국주의자(Russophile Patriots)와 종교적 구원을 추구하는 친러시아적 전통주의자(Russophile Traditionalists)로 양분되었다. 전자는 러시아인의

19) Vladimir Shlapentokh, *Soviet Intellectuals and Political Power: The Post-Stalin Er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 186~7.

역할과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국수주의적 경향을 띠면서 체제에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 반면 후자는 소련에서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체제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²⁰⁾

우리가 유의할 두 가지 점은 친러시아주의적 지식인들, 특히 애국주의자들의 정치참여는 지식인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과 소수민족 지식인의 이상과는 결합되기 힘든 경향을 띠면서 장차 소련의 위기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에 기여했다는 것이다.²¹⁾ 이같은 점들은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빼레스트로이까와 글라스노스트를 통해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시민사회라는 개념하에 러시아 온정주의적 전통들을 비판하면서 서구적 다원주의의 모델을 수용하고자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지식인은 세력이 미약하고 이질화되어(heterogeneous) 협의를 통한 체제변혁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형태의 변화에

20) Ibid., pp. 210~3.

21) 소련의 소수민족주의 지식인들은 자력에 의해 독립된 국가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적 모순에 의해 소련이 붕괴하는 경우 자신들의 민족이 해방의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민족문화를 보존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Hammer, "Alternative Visions of the Russian Future," pp. 268~9.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행하지 못하였다.²²⁾ 또한 이러한 變革의 中心不在 상황에서 소수민족의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1991년 강경 보수파의 쿠데타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몰락을 자신들만의 독립국가 수립의 기회로 삼게 되었다.

나. 東 歐

(1) 폴란드

폴란드는 966년 독립국가를 형성하였으나 곧 타 민족의 침입에 시달리다 결국 1794년 러시아, 프로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됨으로써 지도에서 사라지는 비운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그후 무력에 의한 獨立을 추구하는 한편 조직화된

22) 이 점에서 쉘라펜토호는 고르바초프 집권기를 포함한 어떤 시기보다도 1960년대가 지식인의 비판적 활동이 더 활발했던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고르바초프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은 개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졌지 도덕적으로 통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왜곡된 소련사를 바로잡는 일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 이론지 「공산당원」과 같은 어용기관이 주최한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주도'되었다. Shlapentokh, *Soviet Intellectuals and Political Power*, p. 281; 李仁浩, “뻬레스트로이까시대의 知識人政策: 歷史學의 변신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13권 2호 (1989 여름), pp. 9~39.

改革을 통한 대내적 역량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19세기 후반 집중적인 교육과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귀족의 영향력은 현저히 쇠퇴하게 되고 지식인 또한 과거와 다른 사회적 배경과 이념을 지닌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²³⁾ 지식인은 이념적으로 좌파와 우파로 경쟁하기도 하였으나 민족통일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공동 보조를 취하고 국민문화의 형성과 국민적 자의식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게 되었다.

수세기에 걸친 외세의 침입과 그것을 극복하고 독립을 회복한 경험은 폴란드 지식인들로 하여금 강한 民族主義的 저항의식을, 그리고 카톨릭의 수용과 지적 세계의 서구화는 自由愛好思想을 갖게 하였다.²⁴⁾ 이같은 지식인의 성향은 19세기경 독립을 위한 저항운동시 널리 퍼진 ‘너와 나의 자유를 위한’이라는 투쟁구호에서 잘 나타났으며, 차후 폴란드 문학 작품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²⁵⁾

국민들의 지식인에 대한 존경과 지식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는 사회주의체제 건설 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되었다. 지

23) 徐丙喆, “폴란드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金達中 외, 「폴란드·동독: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서울: 法文社, 1989), pp. 9~14.

24) 위의 논문, p. 18.

25) 위의 논문, p. 20.

식인이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지킬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 카톨릭 教會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및 도덕적 지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지식인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식인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신앙에 있어서 더 신중하였으며 따라서 사회의 존경받는 계층으로서 존속할 수 있었다.²⁶⁾

다른 한편으로, 教育制度가 과거의 지식체계를 파괴하거나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형’을 주조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상승시키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사회주의에서 교육은 체제에 기능적인 지식인을 양성하고 사회적 이동을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체제를 유지시키지만, 폴란드의 경우 교육이 그러한 효과를 낳지 못하였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60년대 중반 전통적으로 특권을 누렸던 家系 출신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고등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것이다.²⁷⁾ 이것은 폴란드의 사회주의 교육제도 아래에서도 과거의 知識體系는 유지될 수 있었으며 이를 생산하는 지식인의 역할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은 나름

26) 安啓春, “폴란드의 社會文化構造와 政策,” 金達中 외, 「폴란드·동독」, p. 59.

27) 위의 논문, p. 55.

대로의 반체제 이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작가인 미흐닉(Adam Michnik)은 ‘新進化主義’(new evolutionism)를 주창하였다. 이것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이 소련의 진압으로 좌절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당내 개혁에 의한 사회주의의 인간화보다 제도권 밖에서 시민권 확장을 위해 투쟁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투쟁이란 무장봉기나 체제붕괴를 위한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소련의 근본적인 내적 변화 혹은 동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사회주의체제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경우 소련의 재개입을 자초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진화주의는 독자적인 의사소통 및 행동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권력 엘리트와 직접적인 충돌없이 요구를 표출할 것을 주장했다.²⁸⁾

폴란드에서 지식인의 비판적 역할은 1980년대 聯合勞組의 형성과 발전²⁹⁾ 그리고 민주적 이행과정에서 절정에 이르렀

28) Vladimir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Free Press, 1992), p. 125.

29) 자유노조의 기원과 발전에 있어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지식인이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인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논의로는 David S. Mason,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Change in Poland, 1980-19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와 David Ost, *Solidarity and the Politics of Anti-Politics: Opposition and*

다. 먼저 KOR(Workers' Defense Committee)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높여줌으로써 자유노조의 결성을 도왔다. KOR은 정직, 개방, 비폭력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생활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 원칙은 그후 폴란드내 반체제 조직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유노조가 1978년 그단스키를 중심으로 조직될 때 KOR의 그단스키 대표였던 보루세비츠(Bogdan Borusewicz)의 리더십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식인의 역할은 중요하였다.³⁰⁾ 한 마디로 지식인의 노동자와의 連帶는 반체제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1989년 무혈투쟁을 통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Reform in Poland in 1968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0)가 있다. 후자의 주장은 Roman Laba, *The Roots of Solidarity: A Political Sociology of Poland's Working Class Democrat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과 Lawrence Goodwyn, *Breaking the Barrier: The Rise of Solidarity in Pol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로 대표된다.

30) Jerome Karabel, "Polish Intellectuals and the Origins of Solidarity: The Making of an Oppositional Allianc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6, no. 1 (March 1993), p. 30.

(2) 헝가리

9세기 말경 현재의 헝가리 지역에 정착하게 된 마자르족은 10세기 중반 신성로마제국에 패퇴한 후 연이은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지만, 서방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정치 및 행정조직을 갖추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헝가리는 또한 16세기 이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Habsburg)가의 지배하에 들어갔지만, 1867년 오스트리아와 화해협정을 통해 이중제국이 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헝가리의 왕을 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직접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³¹⁾ 따라서 헝가리는 동구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일찌기 獨立性を 확보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헝가리는 11세기 이후 지적, 예술적 활동을 서구문화와 민족적 성격을 융합하려는 차원에서 발전시켜 향후 지식인의 민주적 및 자유주의적 활동의 공간을 열어 놓았다. 또한 지식인은 하나의 階層으로서 국민을 선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정신을 제고시키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³²⁾

31) 安秉永, “헝가리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金達中 編, 「헝가리·유고슬라비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서울: 法文社, 1988), pp. 21~4.

32) 安啓春, “헝가리의 社會文化構造와 政策,” 金達中 編, 「헝가리·

이같은 역사적 및 지적 배경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지식인의 批判的 役割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하자 헝가리 청년공산주의자동맹 내의 페퇴피(Petőfi) 씨클이 개혁주의자 나지(Imre Nagy)를 권좌에서 축출한 당시의 라코시(Rakosi) 체제를 비판하였는데, 이 씨클은 작가, 예술인, 학자, 교원, 학생 등의 지식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년 10월 23일의 헝가리 혁명은 일반 국민들의 농축된 잠재력이 이같은 지식인의 주도로 정치적 자유의 보장과 분권화된 경제개혁에 대한 주장으로 폭발한 국민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³³⁾

이후 권력 엘리트와 지식인은 서로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지식인은 당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은 지나친 억압과 통제가 1956년처럼 공개적인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⁴⁾ 이같은 관계로 인하여 콘라드(György Konrad)로 대표되는 헝가리의 지식인은 ‘反政治論’(antipolitics)을 내세우면서 체제를 비판하였다. 반정치론은 말 그대로 현존하는 권력에 대한 어

유고슬라비아」, p. 113.

33) 安秉永, “헝가리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p. 30.

34) 安啓春, “헝가리의 社會文化構造와 政策,” p. 114.

편 대안적인 권력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私的 領域을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고 당의 통제 밖에서 인간의 협동과 의사소통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반정치론은 독자적인 포럼을 형성하여 정치권력에 저항하되 이 포럼이 정치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을 주장하였다.³⁵⁾

이같이 한정되었던 지식인의 비판적 활동은 1980년대 후반에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8년 말경에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시민단체들이 무려 50여 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민주포럼’(Hungarian Democratic Forum)과 ‘자유민주주의동맹’(Alliance of Free Democrats) 등이 있었다.³⁶⁾ 민주포럼은 1989년 중반 정당으로 개편되었고, 후자는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체제에 도전하였다. 아무튼 시민단체들은 하나의 모집단으로서 ‘반체제원탁회의’(Opposition Round Table)를 결성하여 1989년 6월부터 공산당과 협상에 들어갔으며 결국 非暴力에 의한 민주적 체제로의 이행을 가져왔다.

35)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pp. 147~8.

36) 徐載鎭 외,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271~2.

(3)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는 원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두 개의 이질적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프라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체코인은 일찌기 문화를 발전시켜 1348년 중부 유럽에서 최초로 대학을 설립할 정도였다. 또한 이민족의 지배하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는데, 그 예로 18세기 도브로브스키(J. Dobrovsky), 융만(J. Jungmann), 팔라키(F. Placky) 등이 체코어 문법책과 사전을 편찬하고 신문을 간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코의 문화와 민족의식은 재생되었다. 한편 슬로바키아인들은 15세기에 들어서 프라하의 찰스대학에서 공부하는 등 체코의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었고, 17세기에는 체코어가 슬로바키아 교양인의 文語로 사용되었다. 결국 두 민족은 합스부르크 제국으로부터 獨立을 쟁취하는데 있어서 연대를 형성하여 1918년 하나의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³⁷⁾

체코슬로바키아는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점령과 소련군의 진주로 다시 외세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다. 사회주의체제 건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간섭과

37) 李崇熙, “체코슬로바키아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尹德熙 외, 「체코·루마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서울: 法文社, 1990), pp. 15~25.

개입은 다른 어느 동구 국가보다도 직접적이었는데, 이는 비교적 공업화가 앞선 지역으로서 소련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의 스탈린 격하운동은 체코슬로바키아에 다소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최소한도의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공산당 지도자 노보트니(Antonin Novotny)는 비스탈린화가 슬로바키아의 자립 경향을 강화시켜 주고 프라하 중심의 당지배가 위협당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그의 성향 외에도 거듭된 숙청으로 정적이 일소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 격하운동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3년 프라하의 봄을 예견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스탈린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두브체크(Alexander Dubcek)가 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에 선출되었으며, 망명작가인 비어(Fritz Beer)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하여 그곳에 ‘文化爆發’이 일어나고 있다고 묘사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인의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었다.³⁹⁾ 이러한 정치적 및 세계의 급변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1968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행동강

38) 崔禎鎬, “체코슬로바키아의 政治와 文化: 프라하의 봄을 중심으로,” 尹德熙 외, 「체코·루마니아」, p. 96.

39) 위의 논문, pp. 97~8.

령: 사회주의로 가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길'을 발표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하게 되자 절정을 이루었다.⁴⁰⁾ 이 행동강령을 작가동맹 의장이었던 골드슈튀커(Eduard Goldstücker)는 혁명에서 개혁으로의 이행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은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여기서 문학, 예술인 등 지식인의 참여와 활동은 대단히 컸다. 특히 바츨리크(Ludvik Vaculik)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은 '2千語 宣言'을 채택하여 예상되는 소련의 개입에 대해서 무력저항도 불사겠다는 결의를 전하기도 하였다.⁴¹⁾ 하지만 소련의 무력 개입과 당 지도부의 교체로 개혁과가 추방됨에 따라 지식인의 역할은 크게 위축되었다.

1975년 헬싱키선언의 준수를 요구하는 '77헌장 그룹'의 탄생은 체코슬로바키아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입증시켜 주었다. 그리고 1987년 최초의 정치적 목적을 띤 '민주화 추진회'(Democratic Initiative)가 결성되어 정치적 자유화 및 개혁을 위한 대화를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등 반체제 지식인들의 組織的인 活動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

40) Robert V. Daniels, 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2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4), pp. 328~9.

41) 崔禎鎬, "체코슬로바키아의 政治와 文化," pp. 106~7.

하였다. 1989년 조직화된 시민단체로서 하벨(Vaclav Havel)을 중심으로 한 프라하의 ‘시민포럼’(Civic Forum)과 슬로바키아의 작가, 예술인들로 모인 ‘반폭력 민중’(Public against Violence) 등이 형성되어 이들의 주도하에 공산당 유일체제를 無血革命을 통해 무너뜨렸다.

(4) 東 獨

금세기 초에 독일은 이미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 바이마르공화국하에서 지식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제도를 확립하여 民主主義의 傳統을 수립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동부지역에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된 후에는 권력 엘리트의 지식인 정책은 강압과 통제로 일관되었다. 특히 그 정책은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인을 창출하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패전 직후부터 동독 공산당은 ‘반파시즘, 민주주의’ 또는 ‘社會主義 文化革命’이라는 정책 아래 1951년 노동자, 농민대학(후에 대학예비학원으로 개칭)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적 지식인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공산당은 또한 스탈린주의 문화정책에 영향을 받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를 주장하면서 저명한 문학 및 예술 작가들의 작품까지 비판하였다.⁴²⁾ 스탈린의 사망도

동독의 지식인 정책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오히려 1959년 4월 공산당 지도자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소위 '비터펠트 노선'을 내세워 사회주의 문화혁명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예술과 생활의 분리, 예술가와 인민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1970년대 초 호네커(Erich Honecker)가 당 제1서기가 되면서 작가, 예술인들의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논쟁을 고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금지된 작품들이 발표될 수 있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탄압받던 작가들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예술 작품들의 질이 제고되었다. 또한 외국의 고전과 현대 예술작품들이 소개되었다. 그러던 중 저명한 시인이자 가수인 비어만(Wolf Biermann)이 1976년 11월 공민권을 박탈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많은 문학, 예술인들이 그에 동조하여 당 지도부에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도 비어만 동조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고, 동독을 떠나고 싶다는 일부 작가들에 대해서 出國을 허용하였다.⁴³⁾ 이는 비판 세력이 내부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낡을 파급효과를 우려한데서 나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은 일반 주민과 지식인에게 분단을 초래하는 적이 외부에 있다는 논리를 전개함

42) 崔禎鎬, “동독의 社會構造와 文化政策,” 金達中 외, 「폴란드·동독」, pp. 188~9.

43) 위의 논문, pp. 191~6.

으로써 실질적인 비판적 지식인의 형성을 억제하였는데, 이 점은 북한이 자주성과 주체의 논리하에 외부의 적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식인 정책으로 동독의 지식인 집단은 자체의 조직적인 세력화는 물론이고 폴란드처럼 타 계층과 연대도 형성할 수 없었다.⁴⁴⁾ 따라서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1989년 말 베를린 장벽과 국경 개방 이후의 피난민 급증으로 인한 권력 엘리트의 체제에 대한 신념의 상실에서 비롯되었으며, 서독에 의해 吸收統合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역사적 전환기에 있어서 동독 지식인의 역할부재로 인해 서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까지 모든 부담을 지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사실은 남북한의 향후 통일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5)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13세기경 현재의 영토를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하기도 하였으나 줄곧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다툼의場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끊임없는 독립투쟁과 국제적인 환경

44) 구동독 지식인 출신이자 통일독일 사민당 부총재를 지낸 티어르제(Wolfgang Thierse)와의 면담, 1995.3.21.

변화에 힘입어 1877년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18년 잃었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독립된 민족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⁴⁵⁾ 루마니아는 외세에 대한 오랜 저항으로 동구의 어느 국가보다도 강한 民族主義的 特性을 지닌 국가이다. 민족주의는 단일 민족국가의 형성과 존속을 저해해 온 역사적인 적들, 특히 러시아 및 헝가리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에 바탕을 두고 민족적 일체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념이었다.⁴⁶⁾

이러한 민족주의적 특성은 사회주의체제 형성 후 줄곧 스탈린주의에 충실했던 루마니아가 1960년대 초 코메콘(COMECON) 내에서의 갈등을 계기로 결국 蘇聯의 支配權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말 소련의 개입이 약화되고 게오르규-데즈(Georghiu-Dej)가 당과 군을 확실히 통제하게 되자 구지식인을 사회적으로 복권시키는 회유책을 사용함으로써 권력 엘리트와 지식인 사이에 제휴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같은 체제 결속을 바탕으로 루마니아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경제적 통합을 목적으로 소련이 주장하는 코메콘내 ‘초국가 원칙’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후 루

45) 尹德熙, “루마니아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尹德熙 외, 「체코·루마니아」, pp. 114~7.

46) Karl W. Deutsch, “National Building and National Development,” in Karl W. Deutsch and W. J. Foltz, ed., *Nation-Building* (New York: Atherton Press, 1963), pp. 10~1.

마니아는 서방권과 경제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⁴⁷⁾

당 지도부는 대외관계에서의 민족주의 문제를 대내적인 사회통제에 교묘히 활용하였다. 권력 엘리트는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키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非러시아화’ 또는 ‘再루마니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⁴⁸⁾ 더욱이 민족주의는 1965년 집권한 차우세스쿠(Ceausescu)에 의해 사회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비판적인 政治意識을 말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민족주의는 루마니아의 민주화 또는 정치적 발전을 저해하였다. 더욱이 권력 엘리트는 지식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베풀어 주면서 체제에 흡수시키는 반면, 순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민족주의자란 낙인으로 매도하였다. 이렇게 민족주의로 포장된 통제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말 고마(Paul Goma)가 인권운동을 전개하였을 때에도 그의 인권호소문에 서명한 지식인은 겨우 두 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흔히 타 사회주의체제에서 지식인의 반체제 운동의 은신처 또는 연대 기관이 되는 교회가 루마니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루마니아의 교회는 東方正教로서 카톨릭과 달리 독립적인 가치나 정의에 대한 의식없이 권력

47) 尹德熙, “루마니아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pp. 131~6.

48) 위의 논문, p. 139.

과 결탁하고 지식인과 국민들의 권력에 대한 복종을 부추겨 왔다.⁴⁹⁾ 따라서 지식인을 비롯한 어떤 계층도 반체제 활동을 조직적으로 행할 수 없었고 당과 국가에 예속된 사회집단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1989년 루마니아의 붕괴는 민주적 혁명이라기 보다는 구국전선이란 소수의 집단에 의한 쿠데타적 체제변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다. 中 國

중국의 지적 전통은 왕조의 존속과 안정을 위해 상당 부분의 지식인과 知識體系가 公有化된 점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지식과 산문을 중심으로 한 과거제도가 일찌기 발달하여 지식인이 국가에 흡수 또는 수용되었다. 지식인 또한 사회의 복리를 위해서 자신의 지식이 활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⁵⁰⁾ 따라서 지식의 생산과 전수가 국가에 의해 독점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는 공적인 지위의 확보를 통

49) 위의 논문, pp. 151~2; 全炳梓, “루마니아의 社會構造와 文化政策,” 尹德熙 외, 「체코·루마니아」, pp. 205~6.

50) Perry Link, “Intellectuals and Cultural Policy after Mao,” A. Doak Barnett and Ralph N. Clough, eds., *Modernizing China: Post-Mao Reform and Develop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86), p. 82.

해 보장되었으며, 지식인의 공적 기능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모택동의 지식인 정책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지식 체계의 전통위에서 지식인의 기능적 역할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지식인의 참여없이 혁명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교육과 개조를 통해 지식인의 부르조아 세계관을 공산주의적으로 바꾸고 체제에 흡수하여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⁵¹⁾

그러나 모택동은 전반적으로 反智政策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반지정책의 연원은 중국혁명이 농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농민들의 의식은 지식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농민들은 본능적으로 지식인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였으며, 이같은 반지식인 경향은 문화혁명 시기에 하방되어 농촌으로 유입된 지식인에 대해서 농민들이 저항했던 데에서 잘 드러났다.⁵²⁾ 물론 시기에 따라서 또는 정치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반지정책의 강도가 달라지기는 하였다. 모택동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노

51) 叢成義, “중국의 知識人政策,” 「中蘇研究」, 13권 2호 (1989 여름), pp. 42~3.

52) 李養浩, “中國知識人和 民主化, 1978~1989,” 「中蘇研究」, 15권 3호 (1991 겨울), p. 96.

선이 실용주의를 강조할 때는 단결을 강조하고, 좌경화되었을 때는 교육과 개조를 강조하였다.

지식인이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시기는 1957~1960년의 反右鬪爭과 1966~1976년의 문화혁명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³⁾ 반우투쟁이 발생하기 직전인 1956년 周恩來는 “지식인 문제에 관한 보고”를 통해 지식인을 노동자계급의 일부로 규정하고 지식인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식인의 고갈로 인해 사회주의 건설에 어려움을 체험했던 모택동은 이를 수용하여 소위 百花齊放, 百家爭鳴運動 전개를 촉구하였다. 이로 인해 그간 억눌렸던 지식인은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게 되었고, 심지어 체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체제의 존속에 위기를 느낀 모택동은 1957년 反右鬪爭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곤욕을 치른 지식인은 무려 55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식인은 강제 노동을 통한 개조와 交心運動을 통한 자아개조를 받아야 했다.

우파투쟁이 있는지 얼마 안되어 중·소분쟁이 시작되고 소련 기술고문단이 중국에서 철수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기술 인력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은래는 다시 1962년 지식인을 정신노동자로 구성된 사회계층으로 규

53) 모택동 집권기 반지식인 정책에 대한 논의는 叢成義, “중국의 知識人政策,” pp. 49~52 참조.

정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온건한 입장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짓밟히고 말았다. 약 10년에 이르는 문화혁명 기간 동안 중국의 지식인 정책은 大破와 大立으로 특징지어진다. 대파는 기존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비판한다는 것이고 대립은 낡은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한다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지식인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모택동의 사망, 문화혁명의 종식 그리고 鄧小平의 복권은 중국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가 向上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덩소평을 정점으로 한 공산당 지도부는 지식인을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무리한 정치적 요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인 정책의 급선회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당이 최대과업으로 설정한 4개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수요건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재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특히 문화혁명으로 인해 단절된 지적 체계는 이러한 요구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둘째, 덩소평이 집권한 시기는 사회주의체제가 건설된지 약 3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지식인은 더이상 부르조아계급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2천만 명의 지식인 가운데 90% 이상이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교육받았으며, 그중 70% 이상은 노동자 출신이다.⁵⁴⁾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등소평은 과학기술이 곧 생산력이라는 명제를 통해 기존 지식관 또는 지식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修正하게 되었다.

등소평의 우호적인 지식인 정책에 힘입어 지적 환경은 크게 변화되었다. 西歐의 著作들, 그 중에서도 19세기 유럽과 러시아 문학가들의 작품이 다시 소개되었다. 또한 유교의 가르침 중 교육 및 탐구를 강조하는 점이 새로운 당 지도부의 노선과 일치하였던 까닭에 유교가 재평가되기에 이르렀으며, 紅專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희생되었던 전의 논리 즉 실용주의적 입장에서의 경제발전에 대한 요구가 긍정적으로 수용되면서 마르크스주의도 재검토되었다.⁵⁴⁾

지식인 정책 및 지적 풍토의 변화와 아울러 1978년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한 改革·開放 政策은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켰다. 농촌에서는 책임생산제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계층이 부농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에서는 지식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식인은 점차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하였고 批判的인 性向을 띠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개혁을 정당화하고 개혁의 추진에

54) 위의 논문, p. 55.

55) Merle Goldman, *China's Intellectuals: Advise and Diss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p. 238~9.

앞장섰던 당내 개혁파 지식인 중 정치개혁에 대한 당의 무관심에 비판을 가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⁵⁶⁾

여기서 우리는 지식인의 이같은 비판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1989년의 民主化運動이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등소평과 당 지도부의 지극히 보수적인 정세인식과 무력동원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조직적인 반체제운동으로 대표되는 폴란드의 경우와 달리 지식인과 타 사회세력간 연대의 부재가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지식인은 소위 ‘엘리트主義’에 빠져 있었다. 劉賓雁을 비롯한 소수 지식인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식인은 학력수준이 낮은 노동자 및 농민과 연대를 형성하려 하지 않았으며 운동의 지도력을 공유하기를 거부하였다.⁵⁷⁾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지식인의 이같은 독

56) 대표적인 인물로 方勵之, 劉賓雁, 王若望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1987년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비판함으로써 당적까지 박탈당하였다. 李養浩, “中國知識人和 民主化, 1978~1989,” pp. 99~100.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지식인들의 민주화 이념은 사회주의와 병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자의 견해로는 Andrew J. Nathan, *China's Crisis: Dilemmas of Reform and Prospects for Democr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p. 178~9 참조.

57) Daniel Kelliher, “Keeping Democracy Safe from the Masses: Intellectuals and Elitism in the Chinese Protest Movement,”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4 (July 1993), pp. 386~90.

점적 성향은 1989년 민주화운동의 실패는 물론이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체제변화 역량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⁵⁸⁾

4. 社會主義體制 知識人에 관한 몇 가지 命題

이상과 같이 각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나름의 역사적 특성과 상이한 지식인 정책으로 인해 지식인들이 체제의 변화과정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근대 民族國家의 形成過程에서 지식인이 주도적 역할을 행한 경우 사회주의체제 변화과정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되풀이 할 것이다. 폴란드 및 헝가리와 같이 수세기에 걸친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로마 카톨릭의 수용과 서구화에 힘입어 지식인이 하나의 사회계층을 형성하여 민족적 자각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는 차후 억압적인 사회주의체제에 대해서 비판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었다. 불행히

58) 이 점에서 劉賓雁은 장차 중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에 의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재현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Liu Binyan, *China's Crisis, China's Hope*, trans. by Howard Goldblat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pp. 138~9.

도 북한 지식인은 이같은 전통을 가지지 못했다.

둘째, 이상과 같은 역사적 경험에 바탕한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制度的 要因들(특히 종교나 교육제도)이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지식인의 역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수세기 동안의 외세에 대한 저항을 통해 민족주의 의식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서구문화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자유주의 의식이 빈약한 동방정교가 우세했던 까닭에,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지식인은 타 민족에 대한 증오심에 바탕한 차우세스쿠의 배타적 민족주의 정책에 쉽사리 흡수되고 말았다.

셋째, 역사적으로 지식인의 理念的 分派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도 되풀이 된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제정 러시아 말기 인텔리겐차는 친러시아적 민족주의, 나로드니크,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분파를 이루었는데, 고르바초프가 빼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지식인의 능동적 역할을 허용하였을 때 지식인 집단은 소수민족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주의, 범슬라브주의, 친러시아주의 등으로 분화되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체제변혁을 주도하지 못하는 역사를 되풀이 하였다. 즉, 소련의 반체제 지식인들은 제정 러시아 말기처럼 체제의 불안정을 가속시키기는 하였으나 폴란드의 지식인과 같이 새로운 민주적 체제를 위한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넷째, 中國과 같이 지적 체계의 公有化의 전통이 깊은 사회주의에서는 지식인이 흔히 정치적 변동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특유의 관료등용 방식으로 인해 중국의 지식인은 국가기구에서 공헌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사회주의체제 아래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 엘리트가 지향하는 체제의 목표에 충성한 지식인은 국가기구에 흡수되었으며, 엘리트 갈등의 와중에서 도태된 지식인은 公敵으로 간주되었다.

다섯째,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지식인이 수행하는 역할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력 엘리트의 知識人 政策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독일은 20세기 초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였으며, 양대전 사이의 바이마르공화국은 특히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해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민주주의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분단 후 동독은 스탈린식 문화정책을 통해 지식인을 억압하였으며, 반체제 지식인의 海外 亡命을 허용함으로써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의 용어를 빌자면 탈퇴(exit)⁵⁹⁾를 통해 체제의 내적 동요를 저지하였다. 동독이 이

59) 이 개념에 대해서는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같은 지식인 정책을 취한 주된 원인은 모든 면에서 서독보다 열세에 놓인 분단관리체계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루마니아의 경우는 억압적인 정책 외에도 국제적 마찰을 民族主義的 감정 제고에 활용한 독특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차우세스쿠는 과거 루마니아를 억눌렀던 외세의 하나인 러시아(소련)에 대한 반감을 부추겨 민족주의로 포장함으로써 이념적 기반이 취약한 지식인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하였다.

여섯째, 사회주의체제 위기시 지식인의 역량은 상당 부분 비판적 지식인의 量的 擴大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비판적 지식인이 문학작가 집단과 같은 특정한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의사, 평화운동가 등 非政治的 分野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이 비판적인 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활약하게 될 때 민주적 체제로의 변혁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다.

일곱째, 지식인과 타 社會勢力 사이의 連帶 또한 지식인의 역량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즉, 권력 엘리트에게 가장 위협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을 참조.

60) Michael D. Kennedy, "The Constitution of Critical Intellectuals: Polish Physicians, Peace Activists and Democratic Civil Society,"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23, no. 3/4 (Autumn/Winter 1990), pp. 281~303.

적인 도전 중의 하나는 지식인과 타 사회집단 간에 존재하는 괴리가 좁혀질 때이다.⁶¹⁾ 왜냐하면 지식인과 타 사회세력 간의 연대는 횡적인 連結效果(coupling effect)를 발휘하여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시민사회 주도의 체제변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폴란드와 중국이 매우 對照的인 事例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폴란드 지식인은 노동자 계급과 연대하여 자유노조의 조직화에 기여하였고 결국 후자가 권력 엘리트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민주적 체제변화를 이끌게 한 반면, 중국의 지식인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져 노동자들을 민주화운동의 세력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연결효과의 중요성은 단지 體制 內的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體制間 지식인의 상호연계가 있는 경우 하나의 국제적 이슈가 비판적 지식인을 활성화하는데 심대한 파급효과를 낳는다. 1975년의 「헬싱키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소련을 포함한 많은 동구 사회주의체제 지식인들은 그들 사이의 연대와 서구 지식인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반체제 전열을 가다듬었던 것이다.

여덟째, 사회주의 붕괴과정에서 지식인의 중심적 역할 여부는 尙後 政局을 주도하는 정당 또는 강력한 반대 정당의 형성 여부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가장 성공

61)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 288~91.

적인 경우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지식인은 체제변혁 과정뿐만 아니라 정국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동구 국가에서는 지식인의 역할부재로 인해 정국불안이라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東獨의 경우, 지식인의 역할부재로 말미암아 서독은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부담을 지게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점은 유사한 분단관리체계의 성격을 지닌 남북한의 통일과정 분석에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第Ⅲ章 北韓 社會主義 移行期 知識人의 試鍊

1. 知識人의 歷史文化的 傳統

타 사회주의체제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사회주의체제가 건설되기 이전의 지식인 전통이 사회주의적 전환 이후 그들의 사회·정치적 역할에 중대한 역할을 미치는 바, 여기서는 먼저 북한체제 형성 이전 지식인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우리 역사에는 知識의 公有化 전통이 면면히 전해져 왔다. 10세기 중엽, 정확히 말하면 고려 광종 9년(957년)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우리의 지식체계는 국가에 의해 공유화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지식인은 과거시험을 통해 사회적 특권을 향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방의 유림들이 번창하여 학파를 형성한 경우에도 이는 어떤 사적인 지식체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치에의 진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지식체계가 공유화된 전통하에서 지식인들은 주로 5백여 년 역사의 조선 왕조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지식체계의 공유화로 인해 구한말 외세의 침입이

라는 체제위기사 지식인들은 변혁의 주체가 되지 못함은 물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지식인 전통은 中國의 사례와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지식체계의 공유화 전통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된 후에도 공적 영역을 벗어난 지식인 집단의 잠재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회주의체제 형성 후 구지식인들은 쉽사리 정파간의 투쟁에 말려들어 수차례에 걸친 숙청을 겪어야 했으며, 새로운 지식인은 철저한 당의 울타리 안에서만 양성되었다.

둘째,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키고 외부로부터의 탄압에 대한 은신처 역할을 수행할 宗教와 制度가 우리의 근대사에 부재하였다. 儒教는 지배이념과 윤리도덕의 원천이 되었을 뿐 일반적으로 종교가 지녀야 할 제도와 조직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위계질서와 서열을 중시한 반면 자유와 평등의 추구 혹은 억압으로부터의 탈피와 같은 자유주의적 이념을 제공해 주지 못한 까닭에 일제하에서도 저항문화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이같은 문화적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북한의 지식인은 김일성에 의한 숙청과 탄압에 대해 일방적인 피해자로 머물러야 했다.

이는 기존 사회주의체제들 사이에서도 동방정교와 로마 카톨릭이 서로 다른 지식인 전통을 낳게된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폴란드와 체코로 대표되는 중부유럽 국가들은 로마

카톨릭의 전통 속에서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였던 반면, 동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처럼 동방정교를 받아들였으며 범슬라브주의의 영향 아래 러시아와 친화력을 가졌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위상에 차이점을 낳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우리 최근세사에 있어서 지식인이 나름의 사적 공간을 확보하는 시기에도 공유된 價値體系를 지니지 못했으며, 따라서 구한말 외세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지식인 사이에서 발전된 民族主義마저 分派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일제하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주의체제 형성 후에도 지식인이 일정한 가치를 공유한 하나의 사회집단이 되지 못하는 역사를 되풀이 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초기의 한국 민족주의는 개화운동, 동학운동, 위정척사운동 등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⁶²⁾ 어느 것도 한국 민족주의의 주류를 이루면서 발전하지 못해 지식인을 이념적으로 응집시키지 못했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은 제정러시아기 지식인이 이념적 분파로 인해 변혁의 주체세력이 되지 못했던 점을 상기시킨다.

더욱이 세 민족주의의 흐름 중에서도 근대적 성격을 지녔던 개화운동보다 동학운동과 위정척사운동이 우세하였고 전

62) 김용직, “한국민족주의의 기원: 정치운동과 공공영역,” 『사회비평』, 11집 (1994) 참조.

통적 공동체 의식과 결합하여 의병운동과 같은 반서양적 저항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斥和洋夷의 민족주의는 결국 일제하 항일무장투쟁의 전기를 마련해 주기는 하였으나, 북한체제 형성 후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요소를 내포한 주체사상의 발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 취약한 북한의 지식인은 이같은 공식 이념체계에 쉽게 흡수될 수 밖에 없었다.

2. 體制形成과 二重的 知識人 政策

해방과 함께 미·소 양대국 군대의 진입으로 사실상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고 김일성 일파가 소련군의 후원 아래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준비할 당시, 북한 내부에 잔존해 있었던 지식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특히 일제가 남기고 간 각종 시설물을 운용할 기술 인테리의 고갈상태는 심각했는데, 그 숫자가 1,500명 정도⁶³⁾에 불과했다는데서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해방 당시 북한이 처한 지식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量的 需給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63) 김일성, “민주건설의 현계단과 문화인의 임무” (제2차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 1946.9.28), 「김일성저작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459.

따라서 북한은 “기술과 인재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⁶⁴⁾는 김일성의 말에서 잘 드러나듯이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 추겨 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二重的인 지식인 정책을 구사하였다.

하나는 일제치하에서 교육받은 舊知識人(이른바 ‘낡은 인테리’ 혹은 ‘오랜 인테리’)을 새로운 체제에 흡수하고 통합하려는 정책이었다. 해방 직후 김일성은 민족자본가, 소상공, 수공업자, 농민, 노동자, 종교인뿐만 아니라 구지식인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과도단계로서의 ‘반제반봉건민주혁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⁶⁵⁾ 이러한 적극적인 구지식인 수용 정책은 김일성이 「임격정」의 저자이자 거물 지식인의 한 사람인 洪命禧가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그와 가진 대화 중 북한에 영주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데서 더욱 잘 나타난다.⁶⁶⁾ 주목할 것은 이같은 북한의 정책이 남한의 열악한 활동여건 속에서 고민하던 좌파 지식인들의 월북을 유도하는데까지 미쳤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鄭準澤,⁶⁷⁾ 李升基 등의 기술 인테리를 비롯하여 韓雪野,

64) 위의 논문, p. 460.

65) 김일성,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앞에서 한 연설, 1945.10.3), 「김일성저작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90.

66) 김일성, “홍명희와 한 담화” (1948.5.6), 「김일성저작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313~4.

李箕永, 林和, 金南天, 李泰俊 등의 문학 작가, 崔承喜, 文藝峰을 비롯한 예술인, 그리고 李炳南같은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지식인이 월북하였다.⁶⁷⁾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전쟁 초 서울을 점령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을 납치해 갔으며, 노동당 검열위원장이던 이효순과 사회과학부장 하양천의 지도하에 과학원장 홍명희 등 남한출신 간부들은 납북인사들을 포섭하는데 앞장섰다.⁶⁸⁾ 다

67) 鄭準澤은 1902년 경기도 출생으로 해방 직후 월북하여 청진(김책)제철소의 기사장과 지배인을 거친 후,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1948년 9월), 노동당 중앙위원(1956년 4월), 정무원 부총리(1972년 12월) 등을 역임한 인물로서, 1956년 6월 월북한 비남론 연구가 李升基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북한의 구인테리 수용정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68) 지식인들의 월북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段階的으로 이루어졌다. 문학 작가들의 경우 월북은 3차에 걸쳐 일어났다. 제1차는 해방 직후 조선문학건설본부와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이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이기영, 한설야와 이들을 뒤따라 송영, 이동규, 윤기정, 안막, 박세영 등이 1945년 말과 1946년 초 월북한 것을 말한다. 제2차는 미군정 당국이 박헌영 체포와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규제하자 이를 피해 남로당 주체세력을 따라 임화, 이태준, 김남천, 이원조 등이 1947년과 1948년에 월북한 사례이다. 제3차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사상전환을 선언했던 기존의 좌파적 성향의 작가들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강제 혹은 자의에 의해 월북한 경우이다. 권영민, 「월북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월북문인 연구」(서울: 문학사상사, 1989), pp. 18~9.

69) 李恒九, 「北韓의 現實」(서울: 新太陽社, 1988), pp. 430~1.

시 말하면, 체제 형성기 북한의 구지식인 수용정책은 단순히 북한지역에 체류하는 일제하의 지식인을 흡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한 지식인의 월북을 유도하거나 전쟁 중 강제 납북하여 포섭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知識人(이른바 ‘새 인테리’)을 育成하는 정책이었다. 북한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민족간부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각종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군사 및 정치간부 양성을 위한 평양학원(2.23), 당 간부 양성을 위한 중앙당학교(6.3), 행정경제간부 육성을 위한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7.1), 그리고 북한 최초의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9.15)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새로운 간부 양성기관의 설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교원을 확충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은 이 문제를 구지식인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이 특히 김일성대학의 창설에 필요한 교원수급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북조선에 있는 학자들을 다 모아야 하며 그래도 모자라면 서울에 있는 선진적인 학자들을 데려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대학에 필요한 교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⁷⁰⁾라고 말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越北 知識人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아무튼 북한의 新知識人 養成策은 김일성대학이 1946년 개

70) 김일성, “종합대학을 세울데 대하여” (교육부문일군들과 한 담화, 1945.11.3), 「김일성저작집」 1권, p. 384.

교시 7개 학부 1,500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으나 1947년에는 8개 학부 3,813명으로 확대되었고 1949년에는 15개 학부에 이르렀으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⁷¹⁾ 또한 기술인력도 1949년 한 해에 기술전문학교와 초급 기술학교에서 4,000여 명이 배출되었는데, 이것은 해방 당시 1,500명의 기술인력에 비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고급인력을 양성코자 하였는데, 그 숫자는 1948년에 80명, 1949년에는 100여 명에 달했다.⁷²⁾

여기서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구지식인의 수용을 기본적인 정책의 하나로 삼으면서도, 일찌기 소련의 주다노프(Zhdanov)식 정책을 받아들여 지식인(특히 문학 작가)을 黨的 統制하에 두고⁷³⁾ 그들의 사상개조사업을 게을리하지 않

71) 김일성, “새 조선의 우수한 민족간부가 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한뫼기념대회에서 한 연설, 1947.10.1) 「김일성저작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457; 김일성, “선진과학기술과 애국사상으로 무장한 민족간부가 되라”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제1회졸업식에서 한 연설, 1949.12.28), 「김일성저작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7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립 1주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한 보고, 1949.9.9), 「김일성저작집」 5권.

73) Hyun-Soo Lim, “Soviet Influence on the Literary Control Policy

왔다는 점이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권력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지식인이 기회주의적이거나 이중적인 의식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과 함께 민주주의혁명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식인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뿌리뽑도록 촉구하였다.

1940년대 후반 대표적인 思想改造事業은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이다. 1946년 12월부터 1948년 초까지 전개된 이 운동은 애국운동, 증산운동, 절약운동과 함께 애국사상, 민주사상, 주인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낡은 사상에 대한 투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문학 분야에서는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이 작가들의 무사상성, 무정치성, 형식주의, 자연주의, 심리주의, 부르조아 민족주의, 세계주의 등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문학계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서곡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원산문학동맹이 발행한 시집 「향응」에 대한 문예총 상무위원회의 비판이었다.⁷⁴⁾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낡은 인테리 작가들은 창작활동에 있어서 당의 통제를 받거나 그

of North Korea, 1946-50,” 『中蘇研究』, 12권 4호 (1988/9 겨울), pp. 177~93.

74) 金英秀, “北韓의 ‘인테리’ 概念과 ‘인테리 政策,’” 『北韓研究』, 16호 (1994 여름), pp. 132~3.

렇지 않으면 낮은 사상적 잔재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사상개조사업에는 예외가 없었다. 이 사업은 당시 지식인 중 가장 전문적이며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醫師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북한은 의사들이 특수한 기술을 지녀 어느 체제에서든지 생존할 수 있으므로 사유제를 원한다고 보았으며 이런 까닭에 그들의 사상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당시의 의사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보건국으로 하여금 의사들을 국가병원 및 진료소로 수용하는 정책을 취하게 하는 동시에 조직적 통제를 통한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⁷⁵⁾

요약컨대,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북한이 택한 지식인 정책은 구지식인 수용과 신지식인 양성이라는 二重的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이 전쟁중에 표면화된 엘리트 갈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구지식인, 특히 남로당계 문학 작가들에 대한 숙청으로 인해 구지식인 수용책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75) 김일성,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한 결론, 1947.5.21) 「김일성저작집」 3권, p. 289; 김일성, “보건위생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북조선인민위원회 제62차회의에서 한 결론, 1948.3.19), 「김일성저작집」 4권, p. 187.

3. 엘리트 葛藤과 南勞黨系 知識人の 肅清

1949년부터 새로운 인테리가 사회에 배출되기 시작하였지만, 한국전쟁 초기 대학생들이 대거 전투에 동원됨에 따라 심각한 知識人 고갈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9월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황이 역전되자 북한은 전쟁승리라는 구호를 내걸면서도 점차 전후복구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김일성이 동년 12월 지식인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⁷⁶⁾ 그는 여기서 평양 복구계획과 흥남 비료공장을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의 복구계획을 밝히면서 경제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쟁과정에서 희생된 지식인을 보충하기 위해 동구 및 소련으로의 留學生 파견과 대학들의 복구작업이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그후 휴전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전투에 동원된 대학생들을 송환하여 전후복구작업에 필요한 技術人力을 미리 확보코자 하였으며,⁷⁷⁾ 휴전 직후 전공별 대학생 수에 있어서

76) 김일성,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 과학자들과 한 담화, 1950.12.24),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30~1.

77) 김일성, “유능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자”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52.6.17),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18.

공학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학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이라는 스탈린식 발전전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⁷⁸⁾

새 인테리의 양성에 대한 이상과 같은 배려와는 대조적으로 오랜 인테리에 대한 탄압이 예고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구지식인의 신지식인에 의한 교체의 우려를 씻고 구지식인을 회유하려는 김일성의 다음 발언들에서 구지식인 사이에 危機意識이 팽배해 있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부 인테리 가운데는 “우리는 과도기인물이니 앞으로 새 인테리가 나오면 교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를 물론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다 교체될것입니다. 낡고 발전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새 것에 의하여 교체되는 것은 사물발전의 법칙입니다.⁷⁹⁾

78) 김일성은 이와 관련,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일성,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3.8.5), 「김일성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8, 36.

79) 김일성, “당조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1.11.2), 「김일성저작집」

새 인테리들이 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오랜 인테리들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오늘 오랜 인테리들과 새 인테리들이 서로 협조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⁸⁰⁾

구지식인의 위기는 전쟁 전부터 정치투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문학예술인들의 표현방식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가 강요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판됨으로써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김일성은 1951년 문학예술인들이 사실주의적 창작기법을 통해 인민군의 투쟁심과 국군과 미군에 대한 중요심을 고취하는 작품을 쓰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⁸¹⁾ 이는 특히 월북 작가들이 전쟁 초기에 남한내 정치투쟁을 형상화하는 작품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점을 비판한 것이었다. 사실주의란 형식상 추상적 개념을 배제하고 구체적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전형적인 인물과 사건을 창조하라는 것으로서 오히려 현실을 무시하고 허구를 강요하는 기법인 셈이다. 이것은 용어상 사실주의적 애국주의 그리고 점차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로 바뀌어 나갔다.

6권, p. 508.

80) 김일성,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자대회에서 한 연설, 1952.4.27), 「김일성저작집」 7권, p. 186.

81) 김일성,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작가, 예술가들과의 담화, 1951.6.30), 「김일성저작집」 6권, pp. 401~3.

아무튼 문학 기법에 대한 김일성의 논의는 문학 작가들의 수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초기까지는 남로당계 출신의 월북 작가들이 북한 문학예술계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숙청과 탄압을 분석하는 것은 곧 구지식인의 전반적인 위상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여기서는 한국전쟁 중 구체화되기 시작한 엘리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로당계 출신 월북작가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남로당계 작가들은 1950년 12월 江界 別五里에서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직후에 표면화된 소련파와 김일성 일파간의 갈등에 의해 비운의 운명을 잉태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51년 1월 蘇聯派의 거두인 許哥而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내각 부수상으로 좌천되었고 金烈이 당 조직부장에서 철직되었다. 소련파는 이 사건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김일성 일파에 대한 반격 혹은 적어도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남로당은 좋은 정치적 연대의 대상이었다. 즉, 문학과 예술이 유용한 정치투쟁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소련파로서는 남로당이 적절한 연대 파트너였다.⁸²⁾ 남로당으로서도 소련파와 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인민군이 최북단까지 후퇴한 상태에서 김일성이 남로당의 박헌영에게 패전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융화될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련과와 남로당의 連帶는 선전 및 선동분야를 장악하고 있었던 소련과가 남로당계 지식인들을 중용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쟁중 월북 작가의 판도를 살펴보면, 이들은 자신의 세력이 전성기였던 1951년 봄부터 1953년 봄까지 다음과 같은 직책을 차지하고 있었다.⁸³⁾

노동당: 李源朝(당 선전선동부 문학예술담당 부부장)

정무원: 趙一鳴(문화선전성 부상; 전 해방일보 주필)

李相昊(문화선전부 출판국장;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와 그 밑에 李春(전 남한신문 편집인), 陳學柱(전 공립통신사 편집차장), 吳基永(전 민주일보 주필)

韓炳珪(문화선전부 예술국 극장지도부장), 한응만(군중문화부장), 권주원, 박동림, 김용일 등

문예총: 李泰俊(부위원장), 金南天(서기장)

시분과위원회에 趙碧岩, 林學洙, 李庸岳, 楊雲閒, 金遺蓮,

82) 허가이 중심의 소련과는 김일성과는 달리 일찍부터 박헌영계의 남로당에 대해서 융화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49년 남북로당 합당 당시 과거 남로당원들을 형식적인 심사 정도로 모두 입당시켰다. 김일성은 소련과의 남로당계에 대한 융화적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서울: 돌베개, 1986), p. 517.

83) 李喆周, 「北의 藝術人」(서울: 啓蒙社, 1966), pp. 71~2.

曹雲, 李善乙, 金尙勳, 홍종린, 馬宇龍, 崔遠根, 石光輝, 常民, 李秉哲, 허진계, 朴山雲, 黃河一, 林虎權, 李貞求, 林和, 趙靈出 등

이렇게 남로당계 작가들은 당, 정 및 문예총에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면서 자신들의 문학예술적 정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문예총 위원장인 韓雪野, 李箕永을 비롯한 소수만이 월북 작가로서 김일성의 충실한 주구 역할을 행하고 있었다.

소련파는 허가이가 비록 좌천되기는 하였으나 소련파의 영향력은 아직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었다.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朴眞愛가 허가이의 뒤를 이었고, 당 선전선동부장에 朴昌玉, 당 조직부장에 朴永彬이 각각 자리하고 있었으며, 내각의 문화선전성 부상에 奇石福, 예술국장에 鄭律이 자리하고 있었다.⁸⁴⁾ 따라서 비록 김일성과인 韓雪野가 문예총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문예분야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남로당계 문인들과 연합할 수 있었다.

소련파와 남로당계 연대 對 김일성과의 대결은 문예분야 지도부서인 문화선전성 對 김일성의 옹호를 받고 있던 최고의 월북 무용가인 崔承禧의 대리전 형식으로 나타났다. 최승

84) 위의 책, p. 70.

회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공산예술축전에 민청예술단의 이름으로 참가하여 ‘조선의 어머니’라는 작품으로 1등상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문화선전성은 예술단의 귀국공연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1등상 수상에 지대한 공을 세운 최승희 무용연구소 소속원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주지 않았다.⁸⁵⁾ 김일성의 비호를 받던 최승희에 대한 푸대접은 곧 소련과의 영향하에 있었던 문화선전성의 김일성에 대한 공세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는 곧 남로당계 문학 작가들의 전형성 부재를 둘러싼 논란으로 발전하였다. 김일성과내 한설야 직계인 嚴浩爽이 남로당계 金南天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소련과 奇石福이 김남천을 옹호하는 과정이 그것이다.⁸⁶⁾

문예총 서기장을 맡고 있던 김남천은 전쟁중 인민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단편소설 「꿀」을 발표한 바 있다. 줄거리는 전투에서 부상으로 낙오한 정찰병이 깊은 산촌 할머니의 간호를 받는 가운데 꿀을 대접받고 점차 상처가 회복되어 다시 전선으로 달려간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전투대열에서 이탈한 죄악감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변민을 하지만, 이같은 고뇌를 결국 노동당을 위해 싸워야겠다는 의지로

85) 위의 책, pp. 63~4.

86) 두 그룹간의 공방 과정에 대해서는 李喆周, 「北의 藝術人」, pp. 90~5를 참조할 것.

승화시킨다는 것이다.

엄호석은 “전형성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평론을 1952년 봄 「로동신문」에 게재하여 김남천의 작품을 실랄하게 비판하였다. 첫째, 주인공이 부상당한 자신을 버리고 간 동료 병사를 비판하였는데 이는 인민군의 도덕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설사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대로 묘사한다는 것은 ‘자연주의적 사실주의’이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김남천을 비방하였다. 둘째, 주인공이 자기 운명을 체념하는 감상주의에 빠지는 모습에 대한 묘사는 전쟁공포와 비애를 전파하며 따라서 사회주의 문학의 典型性 命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었다.

소련인 2세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미학에 정통한 기석복은 “우리 문학 평론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엄호석의 비판을 공박하였다. 그는 김남천의 묘사는 전투적 상황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김남천의 글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충실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이러한 일련의 공방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었다. 林和⁸⁷⁾의 시 「너 어느 곳에 있느냐」와 이태준의 소설 「고귀한

87) 임화는 월북 작가로서 북한 문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로 김일성파의 공격대상이 될 만했다. 우선 그의 약력을

사람들」 등 월북 작가의 많은 작품들이 김남천의 「꽃」처럼 김일성계 문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다시 기석복의 역공을 받았다. 이러한 갈등은 일단 기석복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태준, 김남천, 임화 등의 문학 생명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치적 희생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창작을 자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⁸⁸⁾

한국전쟁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남로당계에 대한 거센 탄압과 함께 월북 지식인들의 입지도 더욱 어려워졌다. 1952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보고를 통해 내심 남로당계를 지칭하면서 宗派主義 잔재를 비판하였다.⁸⁹⁾ 이를 계기로 1953년 3월 말부터 본격화된

보면, 1926년 12월 李箕永, 한설야 등과 함께 1925년 조선공산당의 지도하에 조직된 카프에 가입해 무산계급 문학운동을 하였으며, 1932년 카프의 서기장이 되어 프로문학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1936년 카프가 해체되자 소수 문학과들과 함께 창작활동을 계속하였다.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8일 이태준과 함께 조선문학건설중앙협의회를 조직하고 의장직을 맡아 다시 프로문학을 주도하다가, 1948년 박헌영을 따라 월북하였다. 그는 문예총 중앙위원 외에도 朝蘇出版社 사장, 朝蘇文化協會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가지면서 소련과와도 밀착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중하여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사양하고 이태준, 김남천 등 월북 지식인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88) 李喆周, 「北의 藝術人」, p. 117.

89) 김일성,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조선

‘사상검토회’는 박헌영과 이승엽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월북 지식인들이 그들과의 연계로 인해 탄압당하게 되었다. 문예총의 사상검토회에서는 임화, 김남천의 동향이 집중적으로 비판되었고, 이들과 밀접했던 사람들도 자백을 강요당하게 되었다.⁹⁰⁾

결국 1953년 휴전 직후 이승엽, 조일명, 임화, 박승원, 이원조, 이강국, 배철, 윤순달, 백형복, 조용복, 맹종호, 설정식 등 남로당계 지도급 인사들과 작가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미국의 고용간첩이라는 죄명으로 숙청되기에 이르렀다.⁹¹⁾ 이같은 숙청에 끝이어 노동당으로부터 이른바 ‘1차 焚書令’이 내려져, 40여 명에 달하는 남로당계 문인들의 논문, 기사, 저작이 반혁명반동 작품으로 규정되어 각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서적들에서 축출되어 소각되었다.⁹²⁾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12.15), 「김일성저작집」 7권, pp. 386~430.

90) 李喆周, 「北의 藝術人」, pp. 142~4.

91) 박헌영에 대한 재판은 1955년 12월 따로 진행되었다. 재판기록 내용은 김남식, 「남로당 연구 1」 (서울: 돌베개, 1984), pp. 480~511 참조.

92) ‘2차 焚書令’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의 마무리로 소련파 및 연안파가 정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되던 1958년 경에 ‘중앙당 집중지도’와 함께 취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창익의 「조선민족해방사」를 비롯하여 박창욱, 김두봉 등 두 정파 출신 인사들의 출판물이 수집되어 소각되었는데, 그 양이 전체 출판

남로당계 작가들에 대한 숙청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종말이 났다. 문예총⁹³⁾ 부위원장 이태준을 비롯한 다수의 작가들은 아직도 소련파의 비호 아래 1953년의 무서운 ‘사상검토회’의 고비를 넘겼다. 이제 이태준과 기석복은 연합하여 작가동맹 서기장 홍순철을 1954년 1월 동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도색행각에 대한 물의를 책임지게 하여 出盟시키고 후임으로 소련파 徐萬一을 임명하였다. 김일성파의 반격이 곧 뒤따랐다. 작가동맹 내에서의 자백사업이 그것이었다. 여기서 李泰俊과 九人會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과거 경력에 대한 자백을 강요당했다. 그러다가 8월 종파사건으로 소련파 박창옥이 김일성파에 의해 참패하자 기석복, 이태준, 그리고 남로당 계열의 월북 문인들은 대대적인 숙청을 당하게 되었다.⁹⁴⁾

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 때까지 분서의 대상이 된 사람은 14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金定基, 「密派」(서울: 大英社, 1967), pp. 237~40.

93) 문학예술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연합조직인 문예총은 1953년 9월 작가동맹 등 단일동맹으로 해산되었다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1960년 재건되어 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기관이 되었다.

94)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많은 월북 작가들의 숙청으로 생긴 공백을 자체적으로 문인들을 양성하여 메꾸는 정책을 폈다. 대표적인 예가 1958년 평양문학대학의 설치일 것이다. 이 대학은 한설야가 학장, 신구현과 조벽암이 부학장이었던 것에서

남로당계의 괴멸과 그에 따른 월북 지식인에 대한 탄압은 문학예술분야에 그치지 않았다. 의료분야를 비롯한 전문 지식인들도 숙청 또는 처형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金時昌 박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들에 대한 집단적 숙청이 있었던 ‘조선의학회 사건’을 들 수 있다.⁹⁵⁾

뇌수술 전문가인 김시창은 해방 후 월북한 李炳南에 의해 전쟁 중 유인되어 입북하였다. 휴전 후 그는 북한 평양임상병원 외과과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적 의료인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상에 오른 이병남의 지시로 ‘조선의학회’라는 학술연구단체의 회장에 올라 학문적으로도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김시창은 학문적 및 임상적 탁월성으로 인해 많은 의사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서 비운을 맞게 되었다. 이는 의사들이 당의 지시보다 김시창의 지시를 더 잘 집행한다는 보고가 1956년 가을부터 당기관에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의학적 공헌과 우수성에 힘입어 남로당계에 대한 숙청을 무사히 넘겼던 이병남과 김시창은 결국 ‘8월 종파사건’의 와중에서 연안파와 가깝다는 이유로 숙청당하게 되었다. 특히

잘 나타나듯이 월북 문인들 중에서 북한체제에 순응한 많은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李恒九, 「北韓의 現實」, p. 470; 李喆周, 「北의 藝術人」, pp. 192~3, 231~7.

95) 이 사건에 대해서는 金定基, 「密派」, pp. 233~7 참조.

김시창의 죄명은 인민군들을 수술과정에서 고의로 살해했으며 의료시설 부족을 불평한 반혁명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방의 많은 의사들도 처형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요약하면, 한국전쟁중 표면화된 엘리트 갈등의 와중에서 구지식인들 특히 남로당계 越北 知識人들은 수난을 겪게 되었다. 전쟁이라는 첨예화된 남북한간의 갈등에 못지 않게 북한 내부의 정치적 소용돌이는 대단히 컸으며, 이것은 다시 구인테리의 존재를 암울하게 만들었다. 구인테리는 체제에 順應하지 않고는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집단이 되었으며, 이 점은 북한 출신 구인테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김일성은 북한에서 유일적 지배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게된 동시에 거의 아무런 저항없이 지식인 집단을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社會主義的 改造와 知識人의 思想改造

북한은 1950년대 후반 社會主義 發展戰略, 즉 ‘중공업 중심, 농업경공업 동시발전’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특히 기술자들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김일성은 기술자의 재등락을 실시하여 관리기구

를 축소하고 現場配置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택하였다. 휴전 직후 중공업성이 이러한 정책에 따라 성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 중 130~140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모범을 보이자, 김일성은 당, 정, 군 모든 기관들로 하여금 기술자들을 공장 및 기업소의 현장에 파견하도록 중용하였다.⁹⁶⁾

또한 김일성은 기술인력 관리에 있어서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양성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유학생 파견과 해외교원의 초빙을 자제하는 동시에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주장하였다.⁹⁷⁾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전시중에는 대학이 정상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유학생 파견이 불가피하였으나, 휴전으로 이제는 대학들이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유학생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므로써 사상적인 유약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제대군인들을 대학에 복귀시켜 그들로 하여금 젊은 대학생들에게 모범을 보

96)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4.3.21), 「김일성저작집」 8권, pp. 346~7.

97) 김일성, “자체의 힘으로 우수한 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자”(홍남공업대학, 함흥의과대학 교직원들과 한 담화, 1953.10.18), 「김일성저작집」 8권, pp. 87~93; “대학의 교육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한 담화, 1955.7.1), 「김일성저작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p. 364~72.

이게 하는 동시에, 대학생들을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전후복구사업에 동원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이 단순히 공업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 까닭에 기술 인테리들의 양성책과 함께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思想改造 작업이 뒤따랐다. 대부분의 기술자 및 전문가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기능적인 역할 때문에 잠시나마 엘리트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1958년경 노동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천리마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기술자들의 소극성, 보수주의에 대한 경고가 북한 언론매체를 휩쓸었다.

특히 김일성은 사회변혁 과정에서 기술자들이 消極性과 保守主義에 빠져 노동자 및 농민에 비해 의식이 뒤쳐져 있다고 경고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기술자의 적절한 배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기술자들은 고루한 사고에 빠져 노동자의 창의성을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지적한 소극성과 보수주의에 몰입된 기술자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그들은 신비성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공업이 신비하다, 과학이 신비하다, 기술이 신비하다, 기계가 신비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신비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귀신'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알 수 없으며 자기만이

과학도 공업도 기술도 ‘귀신’처럼 안다는 것입니다. 과학원의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란 한 두 해에는 연구할수 없으며 적어도 10~20년 걸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가도 별로 자랑할 만한 일을 해놓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 자체가 신비성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일본제국주의 사상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그전에 일본의 모모한 대학을 다녔는데 당신들이야 무엇을 아는가?”고 하면서 일제 때의 ‘공칭능력’을 추켜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내러누르려고 합니다. 그들은 낡은 기술로 우리의 현실을 재려고 하며 낡은 사상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도 때려부셔야 합니다.⁹⁸⁾

김일성은 기술자 및 과학자들의 기술신비주의와 낡은 사상적 잔재가 새로운 체제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다고 보면서 이들에 대한 사상투쟁과 당성 단련을 강조하였다. 특히 노동자, 농민의 의식보다 뒤져 있다는 경고와 함께 기술 인테리를 勞動現場에 보내어 그들과 생활하면서 혁명성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⁹⁹⁾은 1960년대에 이르러 확산되기 시작한 인테리의 ‘노동계급화, 혁명화’ 정책의 주요 근간을 이루게

98)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전국 생산혁신자대회에서 한 연설, 1958.9.16),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521~2.

99)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당, 국가, 경제기관, 사회단체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8.9.25), 「김일성저작집」 12권, pp. 548~9.

되었다.

그러나 지식인의 사상개조 과정에 있어서 가장 탄압을 받은 대상은 文學藝術人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 초기부터 시작하여 휴전 후까지 지속되었던 엘리트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문학예술분야 지식인들의 숙청에 힘입어 이들에 대한 사상개조는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권력 엘리트는 195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업협동화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문학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질타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문학예술인들 사이에서 가까운 사람을 감싸고 도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낡은 잔재인 家族主義 경향이 남아있다고 공박하였는데, 이는 임화, 이태준 등 남로당계 작가들에 대한 탄압시 여타 작가들이 보인 동정적 태도를 두고 말한 것이었다.¹⁰⁰⁾

문학예술인에 대한 사상개조 작업은 또 한 차례의 肅清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1958년 가을부터 1년여 실시된 ‘중앙당집중지도’였다.¹⁰¹⁾ 이때 많은 구지식인들은 박헌영 중심의 남로당계, 박창욱의 소련파, 최창익의 연안파 등과의 관

100) 김일성,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58.10.14), 「김일성저작집」 12권, pp. 551~9.

101) 金定基, 「密派」, pp. 281~91.

계에 대한 여죄를 자백하여야만 했다. 특히 월북 인테리들은 해방 후 한국전쟁 전의 불철저한 공산당 생활에 대한 자기 비판을 강요당하였는데, 그들은 자기비판의 근거로서 출신성분이 자본주의 인테리였다는 점과 잘못된 박헌영 지도노선에 추종했다는 점을 들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심적 갈등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였으며, 북한 당국은 이들을 곧 반혁명분자로 규정하였다.

요약하면, 북한은 휴전 후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와 농업협동화를 통해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制度化시키는 동시에 이에 걸맞는 思想改造 작업도 추진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술 인테리나 문학예술인 모두 사상개조의 대상이 되었지만, 새로운 체제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념적 도구 역할을 해야만 했던 문학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아무튼 사회주의 제도화(공업화와 농업협동화)와 인테리의 사회적 입지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5. 小結論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비에트화 과정을 거쳐 건설된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들은 제도화와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 구 지식인의 두뇌와 노동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반체제적 요

소를 지니지 않는 한 그들을 체제에 흡수시키는 차원의 정책을 구사하였다. 한편, 체제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사회주의체제의 지식인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국제공산주의의 확산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체험하면서 체제에 동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1950년 말까지의 社會主義 移行期 동안 급격한 사회변혁에 상응하여 지식인 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초기의 '구인테리 수용, 신인테리 양성'이라는 이중적 정책에서 숙청과 사상개조를 통해 구인테리를 탄압하는 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이중적인 정책 중 전자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같이 독특한 북한 지식인 정책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즉, 근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지식인이 취약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세력에 기반을 둔 반김일성 파벌(남로당계, 소련파, 연안파)들이 사회주의체제의 건설과정에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분단관리체계로서 戰爭을 수행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엘리트 갈등 과정에서 반김일성과의 연계를 가진 모든 정치세력과 지식인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엘리트로부터 '정당한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동구와 비교해 볼 때 북한체제만이 지닌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東獨의 경우만 보더라도 북한과 같이 분단

관리체계였지만 서독과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찌즘의 독재 아래서 외국에 연원을 둔 공산주의 정파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명분이 없었다.

말하자면,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이행기 특히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 기간과 1950년대 후반의 사회주의적 개조 기간에 그 이후의 북한 특유의 지식인 정책인 ‘인테리의 노동계급화’의 근간을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다.

第Ⅳ章 金日成 唯一指導體制 確立期 知識人の階級的變形

1. 急速한 工業化 對 知識體系의 踏步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업화의 기초축과 과학기술의 낙후가 공존하는 모순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과 5개년계획(1957~1960)은 계획목표를 능가하여 각각 2.8배와 3.5배에 이르는 공업총생산을 이룩하였다.¹⁰²⁾ 더욱이 5개년계획은 계획목표를 1년이나 조기달성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이같은 급속한 공업화는 기술인력의 양적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휴전 후 기술자의 기하급수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부족 현상을 낳았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공업화의 주역인 기술자의 증가가 결코 지식수준의 향상, 즉 지식체계의 질적 심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 3년 연장)을 추진하는 동안 첫째, 지식인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양성 教育機關을 확충하는 동시에, 둘째, 공업발전과 지식체계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技術革命의 달

102)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5.

성과 大學教育의 질을 높인다는 이중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먼저 기술 인테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1960년 몇 가지의 정책을 내놓았다.¹⁰³⁾ 첫째는 대학기간 동안 實習教育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공장, 기업소에 배치된 기술 인력이 곧바로 현장의 생산시설을 능숙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대학교육기간 5년 중 2년은 이론교육, 3년은 실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교육정책을 고수하는 동시에 기술인력의 현장에의 적응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공장 야간학교를 설치하여 초등중학교 졸업 노동자들에게 고등중학교 과정을 교육시키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대학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몇 개의 주요 기술 교과목만을 통과하면 대학입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1~15년의 산간학부를 설립하여 재직일군들의 재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는데, 주목할 것은 교육기간 동안 노임을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넷째는 기술대학들로 하여금 여학생의 입학을 증대하도록 하여 남성만으로 부족한 기술인력의 충원을 여성으

103) 김일성,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더 잘할데 대하여”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60.3.9), 「김일성저작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71~4.

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김일성은 1959년 북한 전역의 대학 숫자를 22개에서 37개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학 졸업자에 준하는 기술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기술대학, 야간대학, 통신대학의 확대 설치를 주장하였다.¹⁰⁴⁾ 그의 이같은 시책들은 1961년 7월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시킬데 대한 내각결정 127호」로 채택되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¹⁰⁵⁾

한편 김일성은 기술혁명을 내세우면서 낙후한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그는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기술혁명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일 우리 나라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나라였다고 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술혁명이 큰 문제로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오래 전에 이미 산업혁명이 수행되고 공업화가 실현되어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많은 재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나라에서는 노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자본가들에게서 기계와 생산수단을 빼앗아 내여 인민의 소유로 만들기만

104) 김일성,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0.8.11), 「김일성저작집」 14권, p. 210.

105)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서울:北韓研究所, 1983), p. 1263.

하면 기술혁명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자본주의적 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뒤떨어진 농업국가에서는 인민이 주권을 잡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한 다음에는 기술혁명이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¹⁰⁶⁾

이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제3세계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는 이론적 논의라기보다는 북한이 당면한 급속한 工業化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과학기술의 낙후성 문제를 지적하는 전략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낙후는 농촌지역에서 심했는데, 협동농장마다 영농과 잡업을 과학화할 기수(전문학교 졸업자) 수준의 인력을 한 사람 갖추기도 힘들 정도였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업분야에서도 창의적인 생산은 거의 없고 소련이나 동구의 모델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김일성의 다음 발언은 기술수준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방 후에 우리 자체로 양성한 기계 기술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의 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대학을 졸업한 기계제작 기사만 하여도 수 천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잘 가르

106) 김일성,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0.8.11), 「김일성저작집」 14권, pp. 184~5.

쳐 일당백으로 준비시켰더라면 그것은 대단한 역량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습설비도 변변한 것이 없는 조건에서 양성하다보니 어떤 사람은 명색이 기계기사이지 설계 하나 바로할 줄 모릅니다. 털어 놓고 말하여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것들은 대부분 남이 설계한것을 가져다 본을 따서 만든것이지 자체로 설계해서 만든것은 얼마 없습니다.¹⁰⁷⁾

북한에서 기술혁명의 실천을 위한 노력은 大學教育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은 전반적 과학수준의 저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의 자질을 높이는 방침을 채택하였다.¹⁰⁸⁾ 대학교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때 방식상학 또는 시범상학, 즉 우리 식의 연구발표를 하도록 하며, 강의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업에 임하도록 하고, 출근점검을 통해 나태한 服務態度를 바로 잡도록 하였다. 또한 과학원 학자의 초빙과 과학원 기자재의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첨단과학에 접할 기회를 늘리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外國語教

107) 김일성,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기술자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66.11.30), 「김일성저작집」 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558~9.

108) 김일성,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1963.4.18), 「김일성저작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26~32.

育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교원들로 하여금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공부를 통해 외부의 과학기술을 습득하도록 촉구하였다.

박사 또는 학사 학위를 지닌 교원의 수가 적다는 점, 그리고 기술 인테리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능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기술인력의 양산에 전력한 나머지 대학의 질적 향상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상과 같은 당시의 정책들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과학기술의 향상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에는 방법상 몇 가지 問題點들이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制度的인 문제로서 대학의 모든 정책이 大學黨委員會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식인은 이중적 특성, 즉 반제반봉건적 혁명성과 계급적 처지에서 비롯된 동요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까닭에, 북한은 당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교원을 관리하는 대학정책을 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기술혁명의 이름 아래 과학기술의 진보를 꾀하려는 목표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둘째는 理念的 문제로서 1960년대 후반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가 확립되면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의 관철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사대주의가 기술의 낙후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방의 과학기술도 ‘필요한 것만’ 들여오고 과학에서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버리고 주체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⁰⁹⁾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월북 과학자인 이승기 박사가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카바이드에서 비날론을 생산한 2.8비날론공업을 극찬하였다.¹¹⁰⁾

셋째는 敎員管理의 문제로서 대학의 질적 향상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다수의 경험있는 교원들을 소위 ‘노동자·농민 출신의 참신한 교원들’ 또는 ‘우리 당이 키운 새로운 인테리 교원들’로 교체하였다는 점이다. 한 예로, 1967년경 김일성종합대학의 경력 교원 2,500명이 일시에 교체되었다고 한다.¹¹¹⁾ 이는 곧 기초지식이 미약한 교원으로서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며 지식의 하향화를 촉진하였을 따름이다.

109)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7.1), 「김일성저작집」 19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p. 401.

110) 김일성,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함흥시 대학교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67.6.19),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04.

111) 김영성, 「오, 수령님 해도 너무합니다」 (서울: 조선일보사, 1995), pp. 205~6.

요약컨대, 1960년대 북한 지식인 정책은 공업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적인 팽창에 주력했으나 정치적인 변수로 인하여 질적 발전의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인 공업화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시작하였다.

2. 南北韓 體制競爭과 舊知識人의 處理

북한은 1950년대 구지식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끊임 없는 견제로 그들을 체제에 흡수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에 가담한 남한출신 지식인을 포함한 월북 지식인 전반에 대한 처리가 전후에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 문제는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숙청 대신에 1960년대에 걸쳐 對南 密派라는 방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제외한 월북 지식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교육과정의 이수 와 함께 북한체제에의 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들을 거치게 하였다. 대남공작을 충실히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충성심을 검증받는 셈이 되지만, 어떤 사유에서든지 임무에 실패하여 남한에 귀순한 사람은 북한체제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자로 판단되었던 것이다.¹¹²⁾

물론 월북 인테리의 처리 방식으로서의 대남 밀파는 북한

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당시의 한반도 내부 혹은 국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된 남북한은 이제 본격적인 體制競爭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1961년 남한에서는 당시 제3세계의 보편적 현상의 하나인 군부정권이 탄생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동서냉전이 격화되고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베트남전쟁이 격화되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북한으로 하여금 危機意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북한은 3대혁명역량강화, 즉 북반부뿐만 아니라 남반부와 국제적 혁명역량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였으며, 여기서 월북 지식인의 충성심 또는 사상검증까지 검할 수 있는 대남 공작 전술이 채택된 것이다.

냉전시대 특히 남북한 체제경쟁이 무르익어간 시기에 대남공작에 기여한 중요한 기관은 松都政治經濟大學이다.¹¹²⁾ 이

112) 남은 월북 지식인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 것만은 아니었다. 肅清이라는 전형적인 지식인 탄압방식이 병행되었다. 韓雪野와 같이 문예분야에서 김일성 정권에 기여했던 인물들은 1960년 초 당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저작 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숙청당하였다. 한설야는 1962년 12월 당 중앙위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출당이 결정되고 공직에서 철직되었으며, 1963년 3월부터 그의 추종세력은 '사상검토회'를 통해 비판되어 숙청되었다. 한설야 세력의 척결과 함께 그들 작품에 대한 소각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가히 북한에서 '3차 분서령'이라고 할만큼 대단하였다. 李恒九, 「北韓의 現實」, pp. 474~80.

대학의 학생들은 크게 세 부류의 월북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는데, ① 한국전쟁 이전 남로당계 출신 인사, ② 전쟁 중 인민군대에 입대한 ‘의용군’ 출신 인사, ③ 전쟁 중 월북하여 북한의 당, 정, 경제 부문 등에서 복무하는 인사 등이다.¹¹⁴⁾ 김일성의 발언에 의하면, 이 대학은 남한내 지하당 재건과 노동운동의 부활을 꾀하고 이들 통해 남북통일이 이룩될 경우 남한의 행정 및 당 사업을 운영하게 될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라는 것이다.¹¹⁵⁾

송도정치경제대학 학생들은 ‘현직대우제’란 이름 아래 기존의 직장에서와 같은 월급과 배급을 4년 동안 그대로 받으면서 재학할 정도로 비교적 좋은 처우를 받았다. 그러나 200~250명 정도인 한 학년은 5~6명으로 구성된 互組班으

113) 이 대학의 전신은 한국전쟁 초기에 황해도 황주에 설립된 서울정치학원과 1952년 10월 황해도 瑞興郡에 세워진 금강학원이다. 서울정치학원은 전시에 공작원을 집단적으로 남파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세워졌으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울을 다시 점령할 기회가 사라지자 대남 공작요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금강학원으로 개편되었다. 금강학원은 엘리트 갈등 과정에서 남로당계 지도급 인사들이 반혁명 간첩죄로 투옥 또는 처형되고 학생들이 평북 천마광산에 보내지게 되자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金定基, 「密派」, p. 243.

114) 위의 책, p. 245.

115) 김일성, “송도정치경제대학 제1회졸업식에서 한 연설”(1957.8.25), 「김일성저작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로 나뉘어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성적이 우수하고 남한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또한 이 대학은 노동당 정치간부 훈련소처럼 당의 규율을 강요하였으며 중앙당학교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계적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였다.¹¹⁶⁾

1957년 이후 배출되기 시작한 이 대학의 졸업생들은 196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大革命力量을 축적하여야 한다는 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대남 공작을 위해 남한에 대대적으로 밀파되었다.¹¹⁷⁾ 이로써 많은 월북 인사들이 남북한 체제경쟁의 희생물이 되기 시작하였다.

한 마디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월북 인테리에 대한 처리가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북한은 전쟁기간 중 의용군 등을 통해 월북한 비교적 젊은 지식인들을 對南戰略이라는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1960년대에 대남 밀파

116) 金定基, 「密派」, pp. 252~7.

117) 김일성은 또한 북한의 문학예술인들로 하여금 남조선혁명역량강화라는 차원에서 남한에서의 4·19학생혁명과 같은 민주주의 투쟁을 찬양하는 작품을 창작하도록 요구하였다. 김일성,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문화예술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4.11.7), 「김일성저작집」 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라는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송도정치경제대학은 이들을 위해 중요한 교육기능을 발휘한 것이다.

3. 知識人の 勞動階級化

1960년대 북한 지식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역시 ‘혁명화, 노동계급화’란 구호 아래 권력 엘리트들이 지식인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펼쳤던 정책일 것이다. 지식인 계층의 稀釋化라고 부를 만한 이 정책은 완전한 사회주의에 이르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그들 나름의 계급정책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 우상화와 유일적 지도체제의 공고화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낮은 인테리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라는 개념은 이미 1960년 김일성에 의해서 언급된 바 있다.¹¹⁸⁾ 인테리를 노동계급화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포괄적인 인테리 정책을 제시한 1968년 6월 함북 인테리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¹¹⁹⁾ 여기서 그는 낮은 인테리가 주로

118) 김일성,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장이상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0.10.19), 「김일성저작집」 14권, p. 422.

여러 이질적인 소자산계급 출신, 즉 소상공업자, 중농, 부유 중농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급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낡은 인테리는 日帝下에서 다음과 같은 二重의 性格을 지녔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재능을 요구하는 일제와 자본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한편, 일제 식민지통치의 압박과 차별대우 그리고 대자본가로부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한 혁명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성격 때문에 인테리는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구지식인을 분명 착취계급은 아니라고 규정하였으며, 그들을 혁명화하여 인민과 노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단순히 낡은 인테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새 인테리에게도 적용되는 정책이 되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인테리들과 새 인테리들간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¹²⁰⁾라는 발언에서와 같이 새 인테리를 양성하기 시작한지

119) 김일성,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 (함경북도 인테리들 앞에서 한 연설, 1968.6.14),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20)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7.1), 「김일성저작집」 19권, p. 388.

약 20년이 흐른 마당에 신구인테리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화, 노동계급화’ 정책이 구지식인뿐만 아니라 新知識人에게도 구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본질적 이유는 후자가 나름대로의 問題點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에 의하면, 북한에서 새롭게 양성된 인테리들은 일제의 탄압과 사회주의건설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혁명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¹⁾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지식인이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대상이 되었는가? 첫째는 文學藝術家들이었다. 김일성은 작가들이 노동계급을 형상화하는 작품을 양산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그 이유를 노동자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풍부한 노동생활의 체험만이 계급문학의 차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¹²²⁾ 둘째는 大學敎員이었다. 당시의 교원들이 1년에 1,000시간의 강의가 과도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데 대하여, 김일성은 기술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같은 불만은 이기주의와 학습열의의 부족

121) 김일성,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과 노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함흥시 대학교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67.6.19), 「김일성저작집」 21권, p. 310.

122) 김일성, “우리의 문학예술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자” (연극, 영화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63.10.29), 「김일성저작집」 17권, pp. 480~1.

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¹²³⁾ 셋째는 大學生들로서 이들도 혁명화되어야만 진정한 사회주의 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고등중학교를 마친 후 군복무나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않고 입학한 소위 수재집단은 혁명화되지 않은 ‘병신 인테리’ 혹은 ‘양반 인테리’가 된다고 보았다.¹²⁴⁾

지식인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한다는 것은 원래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소부르조아사상 잔재를 黨性, 階級性, 人民性으로 대체시켜 노동계급의 인테리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¹²⁵⁾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의 계급적 잔재는 모두 사라

123) 김일성,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대 대하여” (고등교육성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2.23), 「김일성저작집」 19권, pp. 193~6, 219.

124)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68.10.2), 「김일성저작집」 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8~10.

125) 북한에서 혁명화와 노동계급화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보완적인 과정들임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혁명화는 思想的 改造의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노동계급화는 노동자 이외의 다른 階級의 存在를 소멸시키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민과 인테리가 혁명화를 통해 노동계급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자라고 해서 무조건 혁명화의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김일성은 “혁명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노동계급도 마땅히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노동계급이 되면 혁명화가 저절로 다 되는 것

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가 이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인테리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분명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와 수령론이 확립되고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정립되는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북한에서의 革命化 方法은 당 조직생활을 통해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는 것과 노동자, 농민의 용광로 속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배우는 것이 있는데,¹²⁶⁾ 일반 인테리뿐만 아니라 당, 정의 高位 幹部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특기할 것은 혁명화가 특히 김일성의 우상화에 기능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인테리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형식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¹²⁷⁾

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마치를 들고 일하는 로동자들이라고 하여 모두가 다 혁명적 세계관이 선 사람으로, 다시 말하여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맑스·레닌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견결한 혁명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일성,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찰할데 대하여”(함경북도 인테리들 앞에서 한 연설, 1968.6.14),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69.

126)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5.7.1), 「김일성저작집」 19권, pp. 396~8.

127) 예를 들면, 「조선민족해방사」의 저자인 역사학자 이나영은 1967년 김일성의 ‘항일무력투쟁 방해죄’란 명목으로 숙청되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최은희·신상욱, 「김정일왕국 하」(서울: 동아일보사, 1988), pp. 34~6.

요약하면,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인테리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존재를 부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 정책은 다른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1950년대의 대대적인 숙청에 이어 지식인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을 안겨 주었다. 이제 지식인은 어느 체제 하에서 양성되었는가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조직생활과 현장경험을 통해서 혁명화되어야 했다. 이 정책이 강조되었던 시기는 김일성의 혁명적 수령관과 우상화가 절정에 달한 때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은 수용소와 같은 가혹한 혁명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4. 小結論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레닌은 노동자와 농민이 기본계급을 이루고 지식인이 ‘類似階級’으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계급이론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북한의 지식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식인의 유사계급으로서의 存在 意味를 철저히 부정하였다.

첫째,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의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지식인 특히 오랜 인테리의 기여가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60년대에 이르러 과학과 기술의 질적 발전에 소홀함으로써 知識體系의 落後를 가져왔다. 물론 권력 엘리트가 지식의 질적 발전에 대한 무관심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요인을 지식인 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권력 엘리트는 1950년대의 숙청이나 사상개조와 같은 탄압정책 속에서 겨우 생존을 유지한 잔재 지식인들을 이제는 당적 및 이념적 통제와 신규 인테리 교체를 통해 그들의 창조적 역할과 능력을 억압하였다.

둘째, 교회 등의 제도적 은신처를 갖지도 못하고 해외 망명과 같은 도피 수단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북한의 지식인(특히 월북 지식인)에게 김일성이 적용한 지식인 정책 중의 하나는 對南工作이었다. 東獨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것은 분단관리체계라는 두 체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북한만의 독특한 지식인 처리방식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존재 의미를 현저히 격하시키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 ‘오랜 인테리’와 ‘새 인테리’를 막론하고 지식인에 대해 취한 ‘혁명화, 노동계급화’ 정책은 유사계급으로서 지식인의 존재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가장 치밀한 정책이었다. 이같은 정책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처럼 지식인의 고전적 전통이 강했던 체제에서는 물론이고 루마니아와 같이 그같은 전통이 취약했던 체제에서

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루마니아는 1960년대 초 코메콘 내에서의 갈등을 계기로 蘇聯 支配權으로부터 일탈한 후 국제적 위상의 급변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지식인의 민족주의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체제 내적 역량을 높이려고 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주체사상을 정립해 나갔지만, 이러한 이념적 발전을 오히려 지식인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책으로 활용하였다.

第 V 章 金正日 登場期 知識人の 承繼體制 道具化

1. 新知識人の 動員과 知識體系의 限界 露呈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에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었고 혁명적 수령관에 의해 그에 대한 우상화가 절정에 달하게 되었으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1970년 11월의 제5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출신들은 당 정치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김일성은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을 겸하는 주석직을 차지함으로써 당, 정, 군에 대한 그의 통치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북한에게 남은 중요한 현안은 後繼體制를 준비하는 문제였다. 이 준비작업은 1973년 9월 당 중앙위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金正日이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로 임명되고 이듬해 2월 개최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전격 발탁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한편 김일성의 수령적 권위 제고와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일의 권력기반 확보를 위해 ‘대를 이어 혁명’이라는 구호 아래 1974년부터 3大革命小組運動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

작하였다. 그런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추진하는 전위대로서 구성된 바로 이 3대혁명소조에는 대학졸업생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소위 청년 인텔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대학졸업생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인텔리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와 후계자인 김정일의 전위대로서 새로운 세대에 의한 혁명위업의 계승이라는 명목으로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체제수호를 위한 신지식인의 道具的 役割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로 인한 지식인의 도구화는 결국 북한 과학기술과 지식체계의 落後를 더욱 가속화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

첫째,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배운 지식을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기회를 갖기까지는 2~3년이라는 空白期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대졸자 중 60~70% 정도가 3대혁명소조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군경력과 함께 소조원 경력은 입당 및 간부 등용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¹²⁸⁾ 따라서, 과반수를 능가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젊은 인텔리들이 전공과는 동떨어진 과제, 즉 오랜 간부들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관분위주의, 관료주의를 시정하

128) 김광욱(전 북한 3대혁명소조원)과의 면담, 1995.4.13.

기 위한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¹²⁹⁾ 이는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당의 방침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을 담보시킬 뿐이었다.

둘째, 小組員의 地位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대체로 그들이 파견된 기관의 당 간부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였다. 이같은 사회적 지위는 그들로 하여금 명목적인 과업에서 일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조원들은 배치받은 지역 내에서도 식료품이나 의류 등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 및 기업소를 선호하는데, 이는 뇌물수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¹³⁰⁾ 대졸자와 같은 젊은 지식인들의 逸脫行爲를 유도하는 3대혁명 소조운동은 결국 지식체계의 손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과 지식의 수준은 대학교육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각 대학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여 자율적인 勉學 분위기를 저해하였다. 특기할 것은 대학에서 행한 소조의 역할은 설비를 개선하고 기술을 개조하는 기술혁명에 참여하지 않고, 임원 및 교원들의 사상적 무장과 학생들의 학습기풍을 세운다는 방침 아래 사상혁명과 문화

129)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75.3.3), 「김일성저작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05.

130) 김광옥과의 면담, 1995.4.13.

혁명만을 전파하는데 있었다는 점이다.¹³¹⁾ 따라서 대학은 대
학당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조원의 감독과 통제를 받게됨으로
써 대학교육의 질은 더욱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지식체계의 낙후가 3대혁명소조운동의 여파에 의해
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과 같은 構造的 限界에
의해서도 지식체계는 정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¹³²⁾

첫째, 主體思想이 유일사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우수한 외
국 학자들의 과학적 이론을 원용하는 것은 김일성 부자의 우
상화와 상충되고 주체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테리들은 외국의 기초지식을 획득하여 주체사상과 당의 기
준에 따라 실무적인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뿐 자신의 논리
로 발전시킬 수 없었다.

둘째, 해외 지식세계와의 斷切로 인해 지식은 북한 내부에
서 단순 재생산될 뿐 세계적 차원에서 검증받은 진리가 될
수 없었다. 북한은 순수학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출장
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도
원이 동행함으로써 학자들의 활동은 지극히 제한되었다. 또

131) 김일성, “교육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할데 대하여” (교육
부문 3대혁명소조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3.12.11), 「김일성
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611.

132) 김정민(전 북한 대양무역상사 사장)과의 면담, 1995.5.17; 임
진호(연변대 물리학부 부학부장)와의 면담, 1995.5.31.

한 외국 전문도서의 반입도 자유롭지 않아 소수의 것만이 유일한 지적 원천이 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첨단지식의 획득은 물론 지식체계의 발전을 극도로 제약하였다. 지식의 폐쇄성으로 인한 북한 학문의 낙후성은 국제학술회의와 교류에 참가한 학자들의 발표주제와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 예로, 북한의 학자들이 가스렌지에 사용하는 도자기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기 위해 중국 연변의 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중국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소재였다는 것이다.

지식수준의 저하에 대해서 북한의 권력 엘리트가 이를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1976년 당시 인테리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북한이 배출한 새 인테리가 40~50대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농업대학 출신들의 수준이 낮아 살초제 및 농약의 성분, 비료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농촌 경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¹³³⁾

주목할 것은 지식수준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북한은

133) 김일성,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6.11.28), 「김일성 저작집」 3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 462~6.

구체적으로 外國語 및 한자교육과 조총련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김일성은 1980년에 100만 인테리들이 각기 인민대학습당의 외국서적을 한 권씩 번역할 것과 남한 출판물의 상용 한자 중 1,000자를 고등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것을 제시하였다.¹³⁴⁾ 또한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조총련의 헌신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하였다.¹³⁵⁾ 이같은 주장은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밀기계공업, 전자공업, 생물학 분야 등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도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직접적인 조총련 기술인력의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총련을 통해 과학기술 원서를 수입하여 활용하거나 이를 번역하여 배포하는 정도로 외국의 과학 및 기술에 간접적으로 접하는 실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시기 지식체계의 담보현상은 1980년

134) 김일성, “교육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4.9), 「김일성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16, 118; ———,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1983.3.23), 「김일성저작집」 3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409.

135) 김일성, “우리 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일본 조선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업에 대하여” (재일본 조선인과학자 대표단, 총련 축산 및 생물기술대표단과 한 담화, 1979.4.13), 「김일성저작집」 3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64.

10월 제6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등장하게 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의해 극명하게 표면화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은 인테리와 농민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주장하여 왔지만, 이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첨가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지식을 소유한 사회적 집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였다. 계급적 성분에 있어서 뒤진 인테리와 농민의 혁명성을 고취시킨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도, 인테리의 잔영이 사라진 상황에서 모든 주민의 知識水準 向上이 당의 당면과제가 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그것의 이면에는 과학 및 기술수준의 향상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였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이 잘입고 잘먹고 잘사는 사회일 뿐 아니라 모두가 다같이 험하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힘든 로동이 많으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노동의 온갖 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이 일을 험하게 하도록 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생산을 고도로 자동화하는 한편 모든 사람의 기술지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여야 합니다.¹³⁶⁾

136)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즉, 북한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라는 구호 아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의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간대학과 더불어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을 확대하여 비과학화와 저기술로 일관된 생산체계를 주민들의 재교육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 지식체계의 踏歩를 극복하려는 간절한 구호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김정일의 정치적 등장과 함께 북한이 양성한 신 지식인들은 주로 후계자적 지위의 공고화를 위해 동원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것은 오직 주체사상의 권위적인 해석하에 존재할 수 있었던 북한의 학문과 지식체계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권력 엘리트가 주민의 지적 수준향상을 당의 과업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이미 구조화된 낙후성을 회복시킬 만큼 효과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2. 金正日 後繼構圖와 文學藝術人的 優待

1970년대 초 이후 북한 지식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지식인들이 분야별로 差等화된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변화는 김정일의 정치적

1978.10.1), 「김일성저작집」 3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39.

위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1964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1972년 노동당 선전 선동부장과 1973년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가 되기 이전까지 주로 당내 文化事業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그의 주요 이력을 살펴보면, 선전선동부 지도원(1966년 2월), 선전선동부 영화예술과장(1968년 2월), 조직지도부 부부장(1969년 3월), 선전선동부 문화예술담당 부부장(1970년 10월) 등이다.¹³⁷⁾ 이러한 활동 영역은 그로 하여금 막후에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공고화와 이상화를 위해서 이른바 ‘주체의 문예리론’ 아래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시절을 ‘재현’하는데 주력하도록 만들었다.

金正日是 1973년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시기를 전후하여 문학예술분야의 창작지침이라 할 수 있는 種子論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문예이론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1973년 출판된 「영화예술론」에서 김정일은 종자란 소재, 주체, 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하나로 통일시키는 作品의 核을 뜻한다고 말하였는데,¹³⁸⁾ 가장 중요한 것이 종자의 사상적 성격 또는 정치적 의의였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김정일의 종자론이 주체의

137) 朴奎植, 「金正日評傳」(서울: 陽文閣, 1992), p. 104.

138) 김정일, “영화예술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권 (1972~197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14.

문예리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지만, 향후 창작과정의 미시적인 차원에까지 당과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¹³⁹⁾

김정일의 정치적 상승과 문예분야에서의 권위 확보는 결과적으로 오랜 숙청과 탄압으로 암울한 시절을 보냈던 문학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向上되는 계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정책의 검증을 거치고 엄격히 선발된 소수의 문학예술인들은 체제수호의 전위대가 된 대가로 상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 비판받았던 몇몇 작가들도 자질이 인정되어 충성을 서약하고 재등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천세봉을 들 수 있는데, 1967년의 작품 「안개흐르는 새 언덕」이 수정주의적이고 부르조아적이란 이유로 김일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차후 김정일이 주도한 4·15창작단에 소속되기에 이르렀다.¹⁴⁰⁾

따라서, 대학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인테리들은 3대혁명소조로 파견되어 북한체제의 신경조직에 해당하는 부분을 김정일 중심으로 새로이 구축했던 한편, 문학예술인들은 혁

139)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77.

140)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pp. 160~2.

명문학예술에 전념함으로써 향후 그의 공식 등장을 正當化 하는데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

문학예술인들의 지위 향상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계기는 백두산 문학창작단과 피바다 가극단에 의해 이루어진 5大 革 命歌劇¹⁴¹⁾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5대 가극은 ‘피바다’(1971), ‘당의 참된 딸’(1971), ‘꽃파는 처녀’(1972),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 ‘금강산의 노래’(1973) 등을 말하며, 이들은 모두 다음 글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정일의 주도면밀한 지도하에 기획되고 추진되었음에 틀림없다.

1971년 7월 17일! 우리들은 이 역사적인 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이날 거대한 화산의 분출과도 같이 하늘 땅을 뒤흔들며 가극 혁명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었다. 이것은 실로 인류가극예술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본격적인 창조전투가 개시되어 불과 15일 남짓한 동안에 세계가극예술발전의 새 시원을 열어 놓은 걸출한 기념비적 혁명가극 ‘피바다’를 창조하도록 이끌

141) 북한 혁명가극의 발전은 1967년 무용극의 독보적 존재였던 崔承喜가 반김일성파로 숙청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녀의 숙청으로 북한은 춤이 핵심을 이루는 무용극에서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울리는 가극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1969년 5월 김일성이 “조선사람은 무용극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노래부르고 춤도 추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세계를 휘어잡은 조선여자」(서울: 뿌리깊은나무, 1995), pp. 345~7.

어준 영광스러운 당 중앙!¹⁴²⁾

여기서 ‘당 중앙’이란 김정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의 업적에 대한 칭송이 곧 이에 참가한 문학예술인들의 지위 향상을 가져왔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⁴³⁾

다른 한편, 김정일의 예술적 활동 특히 혁명가극의 성공적인 공연은 그의 후계자적 지위를 확보해 주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피바다’ 공연을 통해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일, 오진우, 최현, 오백룡, 백학림, 이을설 등으로 대표되는 혁명 1세대의 심금을 울림으로써, 후계자 응립과정에서 金英住를 제치고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¹⁴⁴⁾

요약컨대, 1970년대 초 이래 金正日의 후계자적 위상강화와 文學藝術人들의 지위 향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과학 및 기술분야의 지식체계와 인적 자원이 정치우선의 원리에 희생되어 낙후와 담보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과 극히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분야별 인테리들 사이의 차등화는 ‘혁명

142) 「조선예술」(1979.7), 李基奉, 「北의 文學과 藝術人」(서울: 思社研, 1986), pp. 310~1에서 재인용.

143) 강명도에 의하면, ‘피바다’를 관람한 김일성은 출연진 모두에게 국기훈장 1급을 수여했다고 한다.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서울: 중앙일보사, 1995), p. 65.

144) 위의 책, pp. 65~6.

화, 노동계급화' 정책에 의해 이미 희석화된 知識人 집단의 의식을 더욱 分裂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小結論

1970년대 초 金日成·金正日의 권력승계를 위한 후계구도의 정립은 타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혁명 1세대의 점진적인 퇴진과 최고 권력 엘리트의 교체는 지식 및 문화체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스탈린 사망 후의 蘇聯이나 모택동 사후의 中國을 보면, 새로운 최고 지도자는 혁명 1세대만큼 이념에 집착하지 않는 동시에 사회주의체제의 정체성을 탈피하기 위해 지식인들의 행동공간을 넓혀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부자간의 권력승계라는 독특한 정치구도에 의해 세대교체에 따른 지식체계의 변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새로 양성된 지식인은 3대혁명소조운동에 동원되었으며, 일부 문학예술인만이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특히 신 지식인의 사회적 동원은 知識體系의 낙후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과 함께 체제의 전반적 침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第Ⅵ章 社會主義 大變革 이후 北韓의 知識人 統制

1. 社會主義圈 崩壞와 金正日의 知識人觀

1989년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의 권력 엘리트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1960년대부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성취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이제 사회주의의 쇠퇴는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되돌리기 힘든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민들에게 북한체제를 正當化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우리식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민족을 사회주의체제의 중요한 단위로 파악한 것으로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북한체제의 고수를 위한 논리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권력 엘리트는 ‘사회주의 좌절’이란 표현과 함께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해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북한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정일이 지적하고 있는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 와해의 原因은 다음과 같다.¹⁴⁵⁾

145)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에게 행한 담화, 1992.1.3), 「친애하는 지도

첫째는 사상교양을 통한 社會統合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들 사회주의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을 사회적 소유관계에서만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체제는 사상의식의 교양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김정일은 주장하였다.

둘째는 社會主義의 根本原則을 일관성있게 고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이 말하는 근본원칙이란 정치·경제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중앙집중식 경제체제, 집단주의, 공산당에 의한 지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졌던 개혁·개방이 자본주의체제의 기본 특성인 다원주의의 요소를 불러 들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동구 및 구소련 사이의 관계는 자주성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보다는 상·하 관계 혹은 중앙·주변 관계를 통한 의존적 연계에 의해 한 체제에서의 변화가 타 체제에 전파되는 波及效果를 낳았다는 것이다.

넷째는 중앙집중식 관리방식이 행정화 경향, 관료주의, 세도주의라는 社會病幣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김일성이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갈 때부터 줄곧 주장해 온 것으로

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28~437, 457.

서 당이 정권기관을 정책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행정을 대행하거나 월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였다.

다섯째는 소위 ‘內部の 敵’이 사회주의의 동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말하기를,

여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한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 세력의 공모 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우경 기회주의 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질식시키기 위하여 일찍부터 침략과 압력, 봉쇄와 회유를 비롯한 갖은 파괴 책동을 직접 감행하는 한편 공산주의운동 및 노동운동의 상하층에서 나타난 혁명의 타락분자, 변절자들을 저들의 앞잡이로 이용하여 왔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운동에서 일어난 사상적 혼란과 우여곡절은 다 그 상층에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 있다.¹⁴⁶⁾

말하자면 체제 와해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행위자가 필요한데 이는 혁명의 배신자 혹은 변절자라고 불리우는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의 적이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부 權力 엘리트이고 다른 하나는 知識人을 의미함에 틀림없다.

146)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중앙방송』 (1993.3.1).

특히 김정일이 지식인을 체제에 위협적 요소 중의 하나로 파악한 것은 그가 “인테리들은 다른 계급, 계층보다 이러저러한 사조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그들과의 사업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일부 준비되지 못한 인테리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자유화바람에 물젓어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¹⁴⁷⁾라고 말한 부분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김정일이 말하는 내부의 적은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로 사회주의체제 붕괴과정에서 결정적인 공헌자 역할을 했다고 보는 사회집단들이라는 점이다. 한편으로, 권력 엘리트는 국가가 부여하는 합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합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가의 공적 영역을 침해하는 逸脫行爲를 저지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정한 현물생산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공장 혹은 기업소의 관리자가 당관리에게 원자재의 조달 또는 시설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받기 위해 뇌물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이다.¹⁴⁸⁾ 다른 한편으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폴란드, 헝가리,

147)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9.2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275.

148) Vladimir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190~202; 1980년대 후반

체코 등 몇몇 동구국가에서는 체제건설 과정에서 지지세력으로 통합되지 않았던 知識人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후기 전체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무기력증을 타파하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하나의 저항이념을 창출하는 사회집단이 되었다. 이들은 제도권 밖에서 시민권의 확장을 위한 투쟁을 위해 독자적인 포럼을 형성하여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마침내 시민사회의 부활 또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권력 엘리트이든 혹은 지식인이든 이들의 이반은 결국 사회주의체제의 존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상태에서 북한의 권력 엘리트는 특히 지식인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여기서 대책이란 다름아닌 지식인에 대한 黨的 指導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요약하면, 김정일의 지식인관은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의 붕괴 과정을 분석하는데서 잘 드러나는데, 지식인이 철저히 체제에 흡수·통합되지 않으면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이후 급증하는 관료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연구로는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2. 金正日の 知識人 統制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金正日은 1990년 9월 당 중앙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知識人 政策을 피력한 바 있다.¹⁴⁹⁾ 그는 지식인에 대한 당적 영도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원래 여러 계급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명한 계급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독자적 계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테리는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로동계급이나 자본가계급과 같이 자기의 계급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을 가지지 못합니다. 인테리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면 혁명의 편에 서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게 되며 부르주아 사상을 가지면 자본가계급의 편에 서서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인테리는 로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받아야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로동자, 농민과 함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됩니다.¹⁵⁰⁾

이같은 주장은 김일성이 1968년 정리하여 발표한 인테리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김일성의 정책

149)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참조.

150) 위의 논문, p. 281.

이 주로 낡은 인테리의 잔재와 그 영향을 경계하면서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김정일의 것은 이미 지식인의 世代交替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식인의 一般的 屬性, 즉 이중성을 경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지식인에 대한 당적 통제를 주장하는 분명한 목적은 김일성이 1960년대 초반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강화하여 그들이 별도의 사회집단으로서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김정일의 통제정책은 사회주의의 發展 段階別로 지식인을 통합하는 순서를 논한 그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는 노동계급이 당을 장악하지 못한 시기로서 지식인을 노동계급의 편에 서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며, 두 번째 단계는 노동계급이 당을 장악한 다음에 이들을 교양개조해야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사회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식인이라는 사회집단을 없애는 단계라는 것이다.¹⁵¹⁾ 말하자면, 현재 북한의 지식인 정책은 김정일이 말하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히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더욱 절실하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

사회주의권 붕괴 후, 김정일이 제시한 지식인에 대한 교양

151) 위의 논문, p. 293.

내용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집단주의적 생명관, 애국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직생활 강화, 실천투쟁,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이다.¹⁵²⁾ 또한 최대의 통제 표적은 留學生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곧 유학생들을 소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분문건에 ‘유학생 출신’이라는 烙印을 찍고 감시를 하고 있다.¹⁵³⁾ 왜냐하면, 유학생은 외국의 문물과 북한의 것을 비교하는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은 노동자나 농민보다도 인테리의 외국출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의 지식인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1992년 12월에 북한체제 형성 이후 최초로 ‘조선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과한 점을 들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을 비롯한 당, 정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하고 과학, 예술,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인 6천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노동당 교육담당 비서 최태복의 보고와 지식인 대표들의 토론은 노동당 중심의 북한체제의 고수와 金正日의 保衛를 위한 지식인의 임무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金日成 死亡 후 최근의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조선지식인대회’를 상기시키면서 지식인의 이

152) 위의 논문, p. 295.

153)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 1995), p. 178.

같은 두 가지 임무 중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6월 17일의 「로동신문」 사설은 “지식인들이 당의 위업을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드팀없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는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요약컨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김일성이 이미 제시한 인테리 정책, 즉 ‘혁명화 및 노동계급화’를 실현시켜 사회계층간 차별을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성취한다는 논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노동당의 마크가 마치, 낮, 붓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체제와 김정일의 보위에 대한 인테리의 임무를 강조하는 二重性을 보이고 있다.

3. 小結論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에서 보여준 지식인의 역할은 김정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 체제마다 지식인의 政治的 役割은 사뭇 달랐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지식인은 변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반면, 기타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들의 지식인은 그렇지 못하였다. 한 가지 공통점은 지식인이란 집단이

창조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비판적 사유 능력의 소지자라는 점일 것이다. 김정일은 이 점을 간파하고 ‘혁명화, 노동계급화’라는 구호 아래 인테리의 계급적 변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그들이 체제 수호적 기능을 수행할 때 存在價値를 새롭게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이중성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第Ⅶ章 北韓 知識人의 社會的 存在樣式

1. 一般的 行動樣式 및 意識

이상에서 논의한 지식인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순으로 사회적 서열이 주어진다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농민과 함께 지식인이 노동계급화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식인은 하나의階層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경멸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와 농민은 지식인의 부정적 속성을 칭할 때 ‘인테리적 근성’ 또는 ‘인테리적 견지’라고 말하고, 그들을 속칭하여 ‘인테리 새끼’라고도 한다. 이런 속칭은 특히 학자, 연구원처럼 상대적으로 고지식한 지식인에게 흔히 사용된다.

또한 지식인이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직업들은 수입에 있어서도 노동자나 농민보다 높지 않다. 더욱이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에서 교원, 연구원, 사무원, 의사 등은 뇌물이나 공공자원의 횡령과 같은 비합법적인 수입원천에 접할 수 없어 결코 인기 직종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북한에서는 권력을 지닌 직종이 아닌 바에야 지식인의 직종이 노동자나 농민보다 나을 이유가 없다.¹⁵⁴⁾

물론 북한에서 일반 노동자나 농민들은 예비 인테리인 大

學生을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인테리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 아니라 일부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회적 상승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중에서도 외교관, 무역일군, 통역관, 당·정간부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국제관계대학, 인민경제대학, 김일성고급당학교 등 노동당 간부부 산하 특수대학들이나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기계대학 같은 교육위원회 산하 일부 일반대학들이 인기가 있다.¹⁵⁴⁾

지식인은 이상과 같은 제한된 사회적 처지와 인식 때문에 일반적으로 消極的인 行動樣式을 보인다. 지식인은 일반 주민들이 토로할 수 있는 불만도 표출하기를 자제하며,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결코 의견선도자가 되거나 주의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학식 또는 전문적 지식의 소지자인 그들이 과실을 범하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사회적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노동자나 농민이 단순한 사고로 실수를 하는 경우는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해되는 반면, 인테리의 경우

154) 김대호(전 북한 서해수산사업소 지배인)와의 면담, 1995.4.14; 진광호(전 북한 인민무력부 보위대학 운전수)와의 면담, 1995.4.17.

155) 김정민과의 면담, 1995.5.17; 홍금수(전 중국 심양시 동북대학 유학생)와의 면담, 1995.4.12; 김영성, 「오, 수령님 해도 너무 합니다」, p. 197.

이것은 고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결과를 수습하기 힘들게 된다. 또한 지식인이 비록 당적 지도를 받으며 사회적인 권위가 하위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주장은 큰 社會的 波及效果를 낳는다. 그러므로, 지식인은 외부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적응하면서도 노동자 또는 농민보다 ‘입이 무거운’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¹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식인에게도 내면적으로 批判的 意識의 잠재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지식인은 미래에 대한 이상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 점은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권 붕괴 후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괴리가 커질수록 비판의식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¹⁵⁷⁾ 이같은 비판의식은 현 북한의 경제난을 金正日 개인의 지도자적 자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환원되기도 한다.¹⁵⁸⁾ 그러나 지식인의 비판의식이 직접 표출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의 결여로 실제로는 김정일에 대한 비판도 간접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될 뿐이다.

156) 김정민과의 면담, 1995.5.17; 임진호와의 면담, 1995.5.31.

157) 임진호와의 면담, 1995.5.31.

158) 홍금수와의 면담, 1995.4.12; 김광욱과의 면담, 1995.4.13; 진광호와의 면담, 1995.4.17.

2. 分野別 知識人の 實態

가. 教員, 研究員

전형적인 인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원은 박사교수, 준박사교수, 부교수, 고급강사, 강사, 조교 등으로 직급이 나뉘어지며, 직급에 따라 처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박사교수는 250원, 준박사교수는 180원 정도의 노임을 받음으로써 노동자 평균 60원이나 사무원의 90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대우를 받는다. 또한 교원들에게는 주택이 거의 무료나 다름없이 제공되는데, 직급에 따라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 조선과학원 직속 연구소에 속한 박사교수의 경우, 일반주민들로서는 접하기 힘든 냉장고, 칼라 텔레비전 등이 있는 아파트가 배정된다. 또 김일성종합대학 박사교수에게는 세 명당 승용차 한 대씩이 마련된다.¹⁵⁹⁾

그러나 이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처우는 극소수의 고위직 교원에 한정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⁰⁾ 교원이나 연구원은 인

159) 林進虎, “中國과 北韓의 自然科學研究”(西江大 東亞研究所 세미나 발표논문, 1995.4.6), p. 5.

160) 교원과 연구원은 처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원은 연구원에 비해 더 나은 사회적 대우

테리 중에서도 가장 고지식한 집단으로서 소위 요령을 통해 식량이나 생필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북한의 학자들은 국경지역 특히 단동에서 식량을 구입하여 귀국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또한 1960년대 문화혁명을 피해 입북했던 조선족 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북한은 교원, 연구원들의 저하된 지위를 心理的으로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사기제고를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이 있다. 이 운동에 발맞추어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 연구소의 백설희 연구원이 미혼의 몸으로 14년 동안의 연구 끝에 성공한 ‘기름꿀’ 재배 사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녀에게 박사, 연구소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의 직책을 주는 동시에 노력영웅칭호를 수여한 적이 있다. 또한 희천공업대학 객원교수 박영철은 주물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력영웅칭호와 김책공업대학 총장 직책까지 받은 바 있다. 이것들은

를 받고 있다. 북한은 한동안 교원들의 의무감을 제고시키고 긍지를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기차, 버스, 식당, 이발소 등에 ‘교원석’을 지정한 적이 있었다. 이외에 오늘날의 교원들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학부모와의 사적인 교제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한다. 김정민과의 면담, 1995.5.17.

인테리 통제정책으로 저하된 교원,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배가시키기 위한 시범적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¹⁶¹⁾

북한의 경제난이 심해지자 1985년경부터 북한의 대학들은 중국의 대학을 모방하여¹⁶²⁾ 부분적으로 獨自的인 財政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것이 성공할 경우 북한 대학의 전반의 재정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수입도 증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이과대학(평남 평성 소재)과 김일성 종합대학은 연변대와 학술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교류를 시도하고자 1993년 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담한 바 있다. 현재 연변대는 10개 이상의 공장이나 기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에는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기업소도 있는데, 북한은 연변대의 기업으로부터 유류를 도입하고 수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류를 계획하였으나 김일성 사망 후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³⁾

161) 김정민과의 면담, 1995.5.17.

162) 中國의 대학들은 1980년 경부터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중단되자 자체적인 재정조달을 위해 공장, 기업소를 개설하게 되었고, 교수들은 그것의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오고 있다. 이제 교수들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소재 개발과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이 학교의 재원으로 전용되기 시작하면서 부당하게 利權에 介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63) 김정민과의 면담, 1995.5.17; 임진호와의 면담, 1995.5.31.

나. 文學作家

북한체제 형성 후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지식인 집단은 문학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특히 월북 작가들)들은 오랜 숙청과 탄압에 의해 문학적 창조와 열정, 그리고 긍지가 철저히 괴멸되었으며,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의 정당화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를 위한 도구로 활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문학작가들의 작품 성향은 時代的 要求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르고 있다. 최근 북한 문학작가들은 특히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 및 북한 경제난과 관련하여, 내부의 사회통합을 위해 세대간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낙후를 만회하고 기술 인테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분야의 ‘숨은 영웅’을 묘사하는 작품을 내놓고 있다.¹⁶⁴⁾

이같은 최근의 경향은 1980년대에 권력승계 구도가 공식적으로 확립될 당시 일시적으로 북한 문학작가들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문제, 이혼문제와 같은 소위 ‘사회주의 현실 주제’를 묘사할 수 있는 약간의 자율성이 허용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사회주의 이행기에도 문학예술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듯이 사회주의권의 쇠퇴에

164)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pp. 278~323.

즈음하여 체제수호에 필요한 저작을 요구하면서 작가에 대한 통제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다. 技術者

북한에서 기술 인테리는 社會主義 工業化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회집단이기 때문에 문학예술인처럼 집단적으로 숙청 대상이 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적으로도 가장 급속히 성장한 지식인 집단으로서, 공장대학이나 어장대학과 같은 재교육기관을 졸업한 노동자 출신까지를 포함하면 그 범위는 더욱 커진다. 그러나 북한체제 형성 후 새로 육성된 이들도 예외없이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입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¹⁶⁵⁾

우선 기술 인테리는 노임 면에서 노동자보다 높고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노동자와 葛藤關係에 놓이는 등 사회적 위상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장 또는 기업소에서 기사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이해타산을 중시하는 반면, 노동자는 실질적인 경험을 중시여기므로 이들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여기

165) 기술 인테리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택해 왔던 까닭에 이 분야의 지식인이 다른 분야의 지식인 보다 좀 나은 처우를 받아 왔다.

서 설사 인테리인 기사의 주장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지라도 그것은 당의 혜택을 받아 대학교육을 받은 자가 지녀야 할 소양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지식인의 주장은 설득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더욱이 기술 인테리는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責任에서 벗어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무런 權限도 가지고 있지 않다. 비당원인 공장 기사의 경우, 공장당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지배인, 당비서, 작업반장과 저학력 노동자 당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뿐이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독자성이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대학 졸업자는 대부분 기사, 연구원, 전문가 등의 자격을 얻지만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실력이 입증될 때에야 비로소 그 자격을 실질적으로 인정받게 된다.¹⁶⁶⁾

라. 醫 師

의사는 지식인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어느 체제하에서나 생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가장 離叛 可能性이 높은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의사에 대한 이같은 북한내 인식은 김일성

166) 김정민과의 면담, 1995.5.17.

이 해방 후 지식인의 사상개조를 주장하면서 의사의 부르조아적 의식에 대한 비판을 빠뜨리지 않은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 의학이다”라는 주장 아래 臨床醫學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며, 이로 인해 임상분야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도 뒤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사회주의 예방의학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¹⁶⁷⁾

첫째, 약품 및 치료기구의 미비로 인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수 의사의 두드러진 의료활동은 동료 의사들의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함흥의대병원 정형외과팀이 3도 화상을 당한 소년을 피부이식으로 구해낸 사실이 알려진 뒤, 북한 당국은 전국의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피부이식 수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시책을 펼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시책은 함흥의대병원팀의 선례를 우수한 임상경험 사례로 남게하기 보다는, 열악한 수술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으며 결국 냉소만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것은 북한 임상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봉화진료소, 남산병원, 평양의대병원, 적십자병원과

167) 김정민과의 면담, 1995.5.17; 임진호와의 면담, 1995.5.31.

같은 특수한 평양 시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지위와 처우가 낮은 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는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오랜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치료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秘方으로 여기고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그의 사회적 권위를 업무적 측면에서 보상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전반적인 의료 수준의 발전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현재 '동의학'(한의학) 분야의 약리이론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 이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마. 行政·經濟部門 知識人

타 사회주의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관료기구는 방대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권력 엘리트의 노선과 정책을 전달하는 신경 역할을 담당한다. 이 관료기구에 속하는 행정 및 경제 부문의 지식인은 체제의 차원에서 보면 다른 분야의 인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업무 인식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 정권기관인 政務院의 경우, 국가계획, 통계, 생산실적, 노력관리, 임금계산, 예산집행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

경제 인테리는 일정한 승급 규정에 의해 지위 상승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측면도 있다. 그들의 職級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대학 졸업 후 정무원에 배치되면 정무원 보조지도원이 되고, 그 후 1년이 지나면 지도원으로 승진되며, 짧게는 3~5년 또는 길게는 5~7년 정도의 지도원을 거쳐 책임지도원이 될 수 있다. 그 후는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바, 규정상으로는 부과장, 과장, 부처장, 처장, 부국장, 국장 등으로 한 등급씩 승진하는데 평균 4~6년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위 직급일수록 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국장급은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또한 행정·경제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일반대학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며, 후비간부 양성책의 대상으로 선발되는 경우 당 중앙위 간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인민경제대학, 국제관계대학 등에서 再教育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행정·경제분야 지식인은 정치적 통제로 말미암아 자율적인 권한이 거의 없으며, 첨단화되지 않은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지극히 고답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지위는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⁸⁾

168) 김정민과의 면담, 1995.5.17.

바. 軍事部門 知識人

북한은 1960년대 말부터 군현대화를 위해서 군사분야의 인테리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에는 김일성종합 군사대학, 강건군관학교, 김일성정치대학, 김책포병군관학교 등 고등군사교육기관을 이수한 인테리들과 소련 유학생 출신들이 인민군의 각 분야에 배치되어 있다. 그들은 육·해·공군의 지휘계통, 군수산업, 교육뿐만 아니라 통신, 레이다, 항공 등과 같은 기술 분야에 포진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내 인테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못해 15~20% 정도 밖에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회집단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부에서도 이념 교육이 강조되는 까닭에, 특히 군부내 技術 인테리들은 실질적 역할에 비해 사기가 매우 위축되어 있다.¹⁶⁹⁾

169) 김정민과의 면담, 1995.5.17.

第Ⅷ章 結 論

본 연구는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해 내고,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 형성기부터 오늘날까지 지식인이 경험한 시련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은 북한 지식인의 경우를 그 명제들에 재조명시켜 봄으로써 지식인의 지위와 역할을 전망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주의체제 건설 이후 북한의 지식인은 급속한 공업화, 의무교육의 확대, 주체사상의 정립,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등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政策的 要因들에 의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왜소화되었다.

첫째, ‘오랜 인테리’의 肅清은 북한 특유의 지식인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지식인 고유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비판의식의 재생산을 철저히 단절하는데 기여하였다. 구지식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엘리트 갈등에 종속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지만, 한반도가 분단체계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은 월북 지식인과 남북 인사들의 숙청이 남로당계 지도부의 괴멸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잔재가 대남공작요원으로 남한에

밀파되었던 사실에서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숙청에 의존했던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기 지식인 정책은 같은 분단관리체계가면서도 반체제 지식인의 국외망명을 허용했던 東獨의 그것과 매우 대조를 이룬다.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의 개념을 원용한다면, 북한의 숙청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불만표출(voice)을 억제시키는 것인 만큼 동독의 해외망명(exit)보다 더 큰 심리적 좌절감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출의 결과로 주어지는 시련에 대한 대안인 망명이 허용되지 않는 까닭에 사실상 강요된 충성(loyalty)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인테리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라는 정책 아래 사회계층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의도적으로 희석시키고자 하였다. 이 정책은 지식인을 더욱 수동적이고 체제순응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형성 후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새 인테리의¹⁷⁰⁾ 質的 向上을 저해함으로써 급속한 공업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

170) 북한에서 지식인의 숫자는 1972년 50만, 1974년 60만, 1980년 100만, 1983년 120만, 1985년 125만, 1987년 130만, 1989년 135만, 1990년 140만, 1991년 150만, 1992년 160만, 1993년 166만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金英秀, “北韓의 ‘인테리’ 概念과 ‘인테리 政策,’” p. 139.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테리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제 1차 7개년계획(1961~1970)의 3년 연장에서 나타나듯이 1960년대 말부터 체제의 停滯를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또한 계급적 기반으로 인하여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면치 못했던 오랜 인테리의 경우처럼 새 인테리 특히 기술 인테리의 사회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상으로 말미암아 북한 지식인은 그들의 계급적 변형에 따른 취약한 存在樣式으로 인해 지식인의 속성인 창조성이 결코 체제비판적 요소로 발전하기는 힘든 상태에 있다. 물론 북한의 지식인은 타 사회집단처럼 최고 지도자, 특히 김정일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것이 축적되는 경우 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다.¹⁷¹⁾ 비판 수준의 변화는 어느 정도의 반복적인 표출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서, 북한의 경우 이러한 여건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북한 지식인의 저하된 사회적 지위와 소극적 역할로 인해 향후 그들이 체제변혁의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71) 이영화, 「평양 비밀집회의 밤」 (서울: 동아출판사, 1995), p. 259.

권력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점진적 改革·開放이 추진된다면 지식인은 이에 기여하는 집단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다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주체사상의 관점 또는 그것의 이론적 변용을 통해 점진적 체제변화를 정당화하는 社會科學 분야의 인테리와 공장·기업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科學技術 인테리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이들 두 분야의 지식인들은 개혁·개방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발전시키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창조성을 발휘함으로써 권력 엘리트의 옹호를 받아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中國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비교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본 북한 지식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政策的인 考慮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 지식인의 창조적 사유 특히 그들의 비판적 사고는 자체적으로 양성되기 힘들며, 다양한 방식의 國際的 交流를 통해서 배양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학술교류 또는 남북한간의 학술토론회 등을 적극 지원하되, 그 지원이 사회문화적 교류가 정치적 긴장완화와 타협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도구주의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975년 헬싱키선언이 동구 사회주의권 지식인들의

서구 지식인과의 連帶意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동북 아시아에서의 지식인의 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 모임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예컨대, 종군위안부를 둘러싼 남북한 및 동남아시아 여성지식인의 연대는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인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식을 갖게해 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국이 중국내 반체제 지식인의 인권문제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효과없이 북한 내부 지식인의 비공식적 연대와 비판적 의식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김남식. 「남로당 연구 1」. 서울: 돌베개, 1984.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영성. 「오, 수령님 해도 너무합니다」. 서울: 조선일보사, 1995.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金定基. 「密派」. 서울: 大英社, 1967.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朴奎植. 「金正日評傳」. 서울: 陽文閣, 1992.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83.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 1995.

徐載鎭 외.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6.

安秉永. 「非政治分野交流가 미칠 北韓 知識人 階層의 意識構

- 造變動에 관한 研究」. 서울: 國土統一院, 1973.
- 李基奉. 「北의 文學과 藝術人」. 서울: 思社研, 1986.
-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李仁浩. 「러시아 知性史 研究」. 서울: 知識産業社, 1980.
- 李仁浩. 「知識人과 歷史意識: 러시아 知性史를 중심으로」.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0.
- 李喆周. 「北의 藝術人」. 서울: 啓蒙社, 1966.
- 李恒九. 「北韓의 現實」. 서울: 新太陽社, 1988.
- 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세계를 휘어잡은 조선여자」. 서울: 뿌리깊은나무, 1995.
- 趙政男. 「蘇聯反體制論」. 서울: 大旺社, 1983.
- 중앙일보사 편.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일보사, 1995.
- 최은희·신상옥. 「김정일왕국 하」. 서울: 동아일보사, 1988.
- Daniels, Robert V. 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2.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4.
- Easton, David.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1990.
- Goldman, Merle. *China's Intellectuals: Advise and Diss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Goodwyn, Lawrence. *Breaking the Barrier: The Rise of*

- Solidarity in Pol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Hirschman, Albert O.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Huntington, Samuel.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 Laba, Roman. *The Roots of Solidarity: A Political Sociology of Poland's Working Class Democrat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Liu, Binyan. *China's Crisis, China's Hope*. trans. by Howard Goldblat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Mason, David 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Change in Poland, 1980-19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Nathan, Andrew J. *China's Crisis: Dilemmas of Reform and Prospects for Democr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 Ost, David. *Solidarity and the Politics of Anti-Politics: Opposition and Reform in Poland in 1968*.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0.
- Schapiro, Leonard.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 梁興模 譯. 「蘇聯共產黨史」. 서울: 文學藝術社, 1982.
- Shlapentokh, Vladimir.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 *Soviet Intellectuals and Political Power: The Post-Stalin Er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Simon, Herbert A. *The Science of the Artificial*. Cambridge, MA: MIT Press, 1981.
- Stepan, Alfred.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Brazil and Southern Con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Tismaneanu, Vladimir.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Free Press, 1992.

2. 論 文

- 권영민. “월북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월북문인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金英秀. “北韓의 ‘인테리’ 概念과 ‘인테리 政策’.” 「北韓研究」, 16호 (1994 여름).
- 김용직. “한국민족주의의 기원: 정치운동과 공공영역.” 「사회비평」, 11집 (1994).

-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75.3.3), 「김일성저작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고등교육성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2.23), 「김일성저작집」 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1983. 3.23), 「김일성저작집」 3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교육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할데 대하여” (교육부문 3대혁명소조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3.12.11), 「김일성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 “교육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4.9), 「김일성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더 잘할데 대하여”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60.3.9), 「김일성저작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0.8.11), 「김일성저작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장이상 일군들 앞에서

- 한 연설, 1960.10.19), 「김일성저작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12.15),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당조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1.11.2),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대학의 교육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한 담화, 1955.7.1), 「김일성저작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1963.4.18), 「김일성저작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3.8.5), 「김일성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6.11.28), 「김일성저작집」 3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 “민주건설의 현계단과 문화인의 임무” (제2차 북조

- 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 1946.9.28), 「김일성저작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보건위생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북조선인민위원회 제62차회의에서 한 결론, 1948.3.19), 「김일성저작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전국 생산혁신자대회에서 한 연설, 1958.9.16),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당, 국가, 경제기관, 사회단체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1958.9.25),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 사업을 강화하자”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68.10.2), 「김일성저작집」 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8.10.1), 「김일성저작집」 3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새 조선의 우수한 민족간부가 되기 위하여 배우고

- 또 배워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한뫼기념대회에서 한 연설, 1947.10.1), 「김일성저작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기술자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66.11.30), 「김일성저작집」 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선진과학기술과 애국사상으로 무장한 민족간부가 되라”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제1회졸업식에서 한 연설, 1949.12.28), 「김일성저작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송도정치경제대학 제1회졸업식에서 한 연설” (1957.8.25), 「김일성저작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우리 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일본 조선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업에 대하여” (재일본 조선인과학자 대표단, 총련 축산 및 생물기술대표단과 한 담화, 1979.4.13), 「김일성저작집」 3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자대회에서 한 연설, 1952.4.27),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

- (함경북도 인테리들 앞에서 한 연설, 1968.6.14),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작가, 예술가들과의 담화, 1951.6.30),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우리의 문학예술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자” (연극, 영화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63.10.29), 「김일성저작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 과학자들과 한 담화, 1950.12.24),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함흥시 대학교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67.6.19),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유능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자”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52.6.17), 「김일성저작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한 결론, 1947.5.21), 「김일성저작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자체의 힘으로 우수한 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자”

- (홍남공업대학, 함흥의과대학 교직원들과 한 담화, 1953.10.18), 「김일성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58.10.14),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3.21), 「김일성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7.1), 「김일성저작집」 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립 1주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한 보고, 1949.9.9), 「김일성저작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종합대학을 세울데 대하여” (교육부문일군들과 한 담화, 1945.11.3), 「김일성저작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45.10.3), 「김일성저작집」 1권.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문화예술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4.11.7), 「김일성저작집」 18권.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홍명희와 한 담화” (1948.5.6), 「김일성저작집」 4권.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정일. “영화예술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권 (1972~197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9.2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에게 행한 담화, 1992.1.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중앙방송」 (1993.3.1).
- 徐丙喆. “폴란드의 歴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金達中 외. 「폴란드·동독: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89.
- 시무어 마틴 립셋. 아소케 바수. “지식인의 정치적 역할.” 알

- 렉산더 켈라 편. 김영범·지승중 역. 「인텔리겐차와 지식인」. 서울: 학민사, 1983.
- 安啓春. “폴란드의 社會文化構造와 政策.” 金達中 외. 「폴란드·동독: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89.
- 安秉永. “헝가리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金達中 編. 「헝가리·유고슬라비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88.
- 尹德熙. “루마니아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尹德熙 외. 「체코·루마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90.
- 李崇熙. “체코슬로바키아의 歷史的 形成과 政治構造.” 尹德熙 외. 「체코·루마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90.
- 李養浩. “中國知識人과 民主化, 1978~1989.” 「中蘇研究」, 15권 3호 (1991 겨울).
- 李仁浩. “페레스트로이카시대의 知識人政策: 歷史學의 變신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13권 2호 (1989 여름).
- 林進虎. “中國과 北韓의 自然科學研究” (西江大 東亞研究所 세미나 발표논문, 1995.4.6).
- 全炳梓. “루마니아의 社會構造와 文化政策.” 尹德熙 외. 「체코·루마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

울: 法文社, 1990.

조한범. “러시아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기업가 형성의 경향성.” 「현대 산업사회 연구」, 1권 1호 (1995 봄).

叢成義. “중국의 知識人政策.” 「中蘇研究」, 13권 2호 (1989 여름).

崔禎鎬. “동독의 社會構造와 文化政策.” 金達中 외. 「폴란드·동독: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89.

———. “체코슬로바키아의 政治와 文化: 프라하의 봄을 중심으로.” 尹德熙 외. 「체코·루마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90.

Deutsch, Karl W. “National Building and National Development.” in Karl W. Deutsch and W. J. Foltz, ed. *Nation-Building*. New York: Atherton Press, 1963.

Glassman, Robert B. “Persistence and Loose Coupling in Living Systems.” *Behavioral Science*, vol. 18 (1973).

Hammer, Darrell P. “Alternative Visions of the Russian Future: Religious and Nationalist Alternativ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 no. 3/4 (Autumn/Winter 1987).

Karabel, Jerome. “Polish Intellectuals and the Origins of Solidarity: The Making of an Oppositional Allianc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6, no. 1
(March 1993).

Kelliher, Daniel. "Keeping Democracy Safe from the Masses:
Intellectuals and Elitism in the Chinese Protest Movement."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4 (July 1993).

Kennedy, Michael D. "The Constitution of Critical Intellectuals:
Polish Physicians, Peace Activists and Democratic Civil
Society."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23,
no. 3/4 (Autumn/Winter 1990).

Lim, Hyun-Soo. "Soviet Influence on the Literary Control Policy
of North Korea, 1946-50." 「中蘇研究」, 12권 4호
(1988/9 겨울).

Link, Perry. "Intellectuals and Cultural Policy after Mao." A. Doak
Barnett and Ralph N. Clough, eds. *Modernizing China:
Post-Mao Reform and Develop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86.

Liu, Guoguang. "Socialism Is Not Egalitarianism." 「北京周報」,
vol. 30, no. 39 (September 28, 1987).

Shils, Edward. "Intellectuals."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7 & 8. New
York: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68.

Stepan, Alfred. "State Power and the Strength of Civil Society

in the Southern Cone of Latin America.” in Peter Evans, Dietrich Reusch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3. 其他

김광욱(전 북한 3대혁명소조원)과의 면담, 1995.4.13.

김대호(전 북한 서해수산사업소 지배인)와의 면담, 1995.4.14

김정민(전 북한 대양무역상사 사장)과의 면담, 1995.5.17.

임진호(연변대 물리학부 부학부장)와의 면담, 1995.5.31.

진광호(전 북한 인민무력부 보위대학 운전수)와의 면담,
1995.4.17.

티어르제(Wolfgang Thierse, 전 통일독일 사민당 부총재)와의
면담, 1995.3.21.

홍금수(전 중국 심양시 동북대학 유학생)와의 면담, 1995.4.12.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研究報告書 95-0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5년 9월 일

發行日 1995년 9월 일
